



JEONG IL

**“인성실업”이 “정일산업”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도약합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원양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깨끗하고 맑은 푸른 바다'의 정신을 지켜가는
정일산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27 (한남동)
TEL. +82-2-749-0291 FAX. +82-2-796-2345

원양산업

제 1173 호
(2024년 9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일간발행(비매물)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간담회 참석 / 4
- 협회, 해외 순직 선원 유해 인도식 추진 / 5
- 2024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 6
- 협회, 전국수산단체장 협의회 오찬간담회 참석 / 7
- IATTC 제102차 연례회의 참석 / 8
- 2025여기 한-FSM 입어협상 참석 / 8
- 원양산업, 국제규범 자체적으로 준수하며 식량공급 / 9
- 어두움미의 대표어종, 대구 / 12



이달의 요리

- 오징어볶음 / 13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9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39달러 / 14

■ 참치어업 동향

- IATTC 연례회의서 참다랑어 어획 한도 확대 합의 / 15
- 참치 선단 분석 결과 소폭 증가 / 16
- 중서부태평양 7월 선망 어획량, 12만 7,000톤 / 17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280달러로 하락 / 18
- 동부태평양 2023년 어획량, 사상 최고 수준인 76만 톤 / 19
-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50달러 / 19
- 日 냉동 눈다랑어 7월 수입량 대폭 증가 / 20
- 日 냉동 참치류 7월 수입 통계 발표 / 21
- 중서부태평양 23년 다랑어 어획량, 약 263만 톤 / 22
- 세이셸 가다랑어 8월 가격, 톤당 1,450유로로 상승 / 23
- 태국 24년 원어 수입, 지난 5년간 최고치 기록 / 24
- 美 상반기 참치 통조림 수입액, 약 3억 달러 / 25
- PNG, 주요 가공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마련 / 26
- PNG, 어업 투자 유치 위하여 국유회사 설립 / 27
- PNG, 어업에서 수십억 달러 손실 / 28
- 미국, 2024년 상반기 아시아산 통조림 수입 확대 / 28
- 세이셸, 2023년 황다랑어 어획 할당량 미달성 / 29
- 마이크로네시아, 참치 세계 시장 진출 확대 모색 / 30

원양산업
제1173호

발행일 2024년 9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

발행처 특수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 영 규

Contents

- 세포 배양 참다랑어, 지속 가능한 해결책 / 30
- 참치는 몸에 좋을까? / 31
- 중등 참치 시장,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세 보여 / 32

■ 오징어어업 동향

- 포클랜드, 2024년 로리고오징어 어기 취소 / 33
- 과학자, 포클랜드 2025년 로리고 어업 금지 검토 권고 / 34
- 日 연구자 “오징어 소비 감소, 배경은 원료 부족” / 35
- 페루 살오징어 어획량, 전년 대비 약 80% 감소 / 36
- 중국 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 심각 / 36

■ 명태어업 동향

- 러, 2024년 9월 초까지 350만 톤 어획 / 37
- 2024년 상반기 러 어류 및 수산물 수출입 현황 / 37
- 美 연육 사업, 내년 호전 전망 / 38
- 노레보, 캄차카 조선 인력 양성 프로젝트 참여 / 39
- 러 상원, 어업협정의 자국 이익 촉진 권고 / 40
- 러, 베링해-북극 동부 수역 통합 연구 우선순위 결정 / 41
- 러 FMC, 자국 VMS 도입 추진 / 41
- 러, 아프리카 조사단 출범 / 42
- 中 최대 연육 제조업체, 사상 최고 이익 기록 / 43
- 러시아 명태, 게, 쥐노래미, 총허용어획량 조정 / 43
- 생선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나 / 44
- 러, 극동 최초의 저연승어선 건조 추진 / 44

■ 공치어업 동향

- 日 공치붕수망 어업, 16~17일 약 640톤 양륙 / 45
- 日 도요스, 첫 공치 경매가 역대 최고치 기록 / 46
- 러,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로드맵 개발 / 46

■ 각국 수산 동향

- 국제 컨테이너 운임, 여전히 매우 높아 / 47
- 인니, EU에 자국 수산물 '청정성' 증명 못해 / 48
- 호주 조업선, 승무원 인중에 대한 FISH 표준 획득 / 49
- 中, 해외 감시 강화로 자국 시장 공략 추진 / 50
- 우리나라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 51
- 미래의 수산물 소비는 어떻게 될까? / 52
- 아프리카 탐험 결과 러 조업량 5배까지 증가 예상 / 52



쉬어가는 난

- 명태 - 신지혜 / 53



국내 수산 정보

- 8월 오징어 국내 동향 / 54
- 8월 명태 국내 동향 / 56

협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간담회 참석

원양산업 중요성 설명 및 업계 이슈 관련 건의



우리 협회는 8월 27일 종로구 S타워에서 진행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는 장태평 위원장, 이시혜 사무국장, 양호섭 농수산식품팀장, 이승원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협회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협회와 원양업계의 안

보·외교적 기여 및 및 기간산업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입지 강화와 해외영토 확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협회장은 또한 ▽2025년 키리바시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 ▽원양어선 외국인 해기사 승선 ▽원양어선원 비과세 확대 ▽원양선사 세금감면 제도 도입 등 원양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협회, 해외 순직 선원 유해 인도식 추진

유해 2위(位) 유족에 전달, 국내 이장



우리 협회는 9월 5일,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여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였다.

우리 협회는 남태평양 사모아와 타히티 묘역에 안치되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를 국내로 이장하기 위하여 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하였다.

이번 유해 인도식에는 사모아와 타히티 선원 묘지의 망자 2인의 유가족과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정찬호 본부장과 우리

협회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회장은 이역만리 먼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이 미약했던 시기 외화 획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초석을 쌓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의 뿌리가 된 고인의 넋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리며, 사랑하는 가족 품에서 편히 영면하길 기원하였다.

해외 원양어선원 유해의 국내 이장을 원하는 가족은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11)로 문의하면 된다.

2024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월 고정급 10만원 인상, 1인 몫 월 272만 7,000원 보장 합의



한국원양산업협회(노사위원장 전선중)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은 9월 10일 노사 임금협정 조인식을 갖고 협회 회원사 한국 선원의 2024년도 임금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협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에서 월 10만원 인상하였고,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에 한하여 1.0인 몫 월 272만 7,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분을 곱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주부식비는 현행에서 1,000원을 인상한 1인 1일 1만 3,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명절상여금은 추석 및 구정에 일률적으로 165만원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기로 합의하였다.

종전에 체결(2018.9.28.)된 '장학제도'는 '학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시행은, 월 고정급과 보장급의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기로 하고, 주부식비, 명절상여금과 학자금을 대한 내용은 협정일로부터 시행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양측은 각 업종에 적용되는 추가협정서에 서명하였다. 세부적으로 참치연승 업종은 선원의 휴식을 위하여 출어 후 12개월 이내 1회 이상의 휴식입항(3일 이상)을 제공기로 하였다.

대구저연승 업종은 단수 전제에 한하여 전제비로 톤당 1만원을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기로 합의하였다.

오징어채낚기 업종은 몬테비데오 이외 해역으로 향해(출발부터 도착까지)하는 기간의 월 고정급은 회사 부담으로 지급기로 하고, 해당 추가 협정서는 협정일로부터 시행기로 합의하였다.

협회, 전국수산단체장 협의회 오찬간담회 참석 수산업 현안 사항 협의 및 발전 방안 논의



우리 협회는 8월 28일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차관 초청 전국수산단체장 협의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와 서울지역 수산단체장 간 현안·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간담회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수산회장, 수협중앙회 경제대표 외에 전국농수

산물도매시장법인,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장은 ▽2025년 키리바시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 ▽원양어선 외국인 해기사 승선 ▽원양어선원 비과세 확대 ▽원양선사 세금감면 제도 도입 등 원양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IATTC 제102차 연례회의 참석

열대성참치 보존관리조치 연장 外

우리 협회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제102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연례회의에는 EU, 미국,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 일본, 중국, NGO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 오지영 사무관(수석), 협회 해외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협력1부 과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열대성 참치 보존관리조치는 현행 조치를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우리나라도 기존의 쿼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참다랑어 쿼터 증대 △해양오염에 관한 보존조치 수립 △FAD 보존관리조치 개정 등이 합의 및 논의되었다.



2025어기 한-FSM 입어협상 참석

2025어기 입어조건 협의

우리 협회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괌에서 열린 2025어기 한국-미크로네시아연방(이하, FSM) 간 입어협상에 참석하였다.

이번 입어협상에 FSM 측에서는 NORMA(해양자원청) 이사회 의장, FSM 정부 대표, KOSRAE 주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원산업 이상범 부장(수석대표), 사조산업 태광호 과장, 신라교역 마현진 과장, 협회 협력1부 주임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2025어기 구매일수 및 조업일수 가격 등의 사항이 논의 및 협의되었다.





원양산업, 국제규범 자체적으로 준수하며 식량공급

이상 기후 변화에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는 인구가 한 해 30만 명씩 늘어 올해 천만 명을 훌쩍 넘자, 초비상이다. FAO는 2050년 세계 인구를 97억 명으로 추정한다. 팬데믹과 전쟁, 물류 마비 등을 겪으며 현재와 미래세대에 갑작스레 먹거리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데, 최근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와 유럽중앙은행 공동 연구팀이 기후 위기로 2035년 식량 물가가 3.23%p 오른다고 발표하였다. 온도가 경제를 좌우하고 비싼 값을 치르려 해도 식품을 못 구할 상황이 올 수 있어 식량안보를 넘어 식량주권이 주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률이 낮아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수산업과 청정해역 고단백 영양 덩어리인 수산물, 즉 블루푸드에 대한 수요와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구상 가장 큰 공간인 바다에서 우리 원양산업은 미래를 훼손하지 않으며 67년 동안 바다와 사람, 사람과 식량, 식량과 지구를 이어왔다. 때론 자연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때로 지독한 외로움을 참아내며 인류 먹거리 공급이라는 소임을 품고 묵묵히 걸어왔다. 230여 척이 참치, 명태, 꽂치, 이빨고기 등 연근해에 없거나, 오징어, 대구처럼 부족한 어종을 해외에서 개발하여 잡는 어업 총생산량의 44%인 76만 톤을 공급한다. 우리나라 2021년 식량자급률이 44.4%로 OECD 최하위권이나 수산물자급률은 세계 1위 소비국임에도 71%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원양산업이 이바

지한 덕분이다.

바다는 인류 삶의 터전이자 원천이고 영원히 보존해야 할 자원의 보고이지만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목표종, 의존종, 연관종, 서식지와 수질 상태가 변하고, 극한의 기상이 찾아오며 해양생태계와 나아가 인류공동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우리 원양어선의 무대인 태평양 열대 한복판, 북태평양 고위도, 아프리카 주변 해역, 남극해와 그 관문인 남서대서양 포클랜드섬 등 세계 곳곳에서 점차 뜨겁거나 차가워지는 수온의 여파가 감지된다.

북위 60도 북서베링해 명태·대구 어장에서는 기상악화가 부쩍 잦아 어선들이 조업 중 피항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겨울로 접어들면 조업 기간과 쿼터가 남아있어도 서둘러 귀항할 준비를 한다. 한류성인 명태는 이미 북극해에 등장했고 대구는 이상기온 영향인진 분명치 않으나 척당 하루 어획량이 3년 전 14톤에서 작년엔 4톤으로 줄었다.

북태평양 공해 핑치 추정 자원량은 20년 전 200만 톤에서 2015년 100만 톤, 2020년 50만 톤을 밑돈다. 주요 5개 조업국 총어획량은 50여만 톤에서 작년 약 12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자원 회복을 위해 북태평양 수산관리위원회(NPFC)는 올해 TAC를 전년 대비 10%, 2018년 기준으로는 55% 감축에 달하는 22만 5,000톤으로 내렸다. 여기에 자원량이 목표치에 미달 시 사전 합의된 규칙에 따라 TAC·어획사망률을 자동



변경하는 어업통제 규칙(HCR)까지 도입하였다. 10여 년 전부터 자원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새고, 최근 잦은 대기 불순과 태풍 등으로 조업이 여의찮다.

남극과 이어진 포클랜드섬 정부는 현 수준으로 빙방이 녹는다면 50S 부근이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 기후변화가 자국 수산업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 방안에 집중한다. 우리 원양 오징어채낚기 업계는 80년대 중반 지구 정반대 포클랜드 어장에 진출하여, 많게는 한 해 10만 톤 이상, 적게는 사실상 제로 어획도 기록하였다. 최근 5년 평균 3여만 톤을 생산한 데 이어, 올해 초 낮은 수온으로 어군 형성이 늦어지고 예년보다 기상이 몹시 나빠 피항이 잦았으나, 적정 크기 오징어가 고루 분포하고 5월 초까지 하루 적당 3~4톤을 꾸준히 생산하여 3.7만 톤을 국내시장에 공급한다.

미국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인도양 북부는 올해 첫 3개월간 표층 수온이 이상치보다 1~2도 높았다. 세이셸 주변은 섭씨 1.25도에서 2도나 올라 참치 선망 어획 부진 원인으로 꼽혔고, 어선들은 결국 25~28도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세계 참치어획량의 54%인 260만 톤이 생산되며, 이중 8개 핵심 자원보유국(PNA) EEZ 총생산량이 160만 톤에 달하고, 우리 원양참치 어선 90%가 조업하는 중서부태평양에는 주기적인 엘니뇨·라니냐 영향으로 170E 기준, 참치 떼가 동으로 서로 이동한다.

FAO 'Common Oceans Program' 모델 예측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2050년 PNA EEZ 참치선망 연평균 어획량은 10% 감소한다.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합산 자원량은 파푸아뉴기니 37%, 마이크로네시아 26%, 마셜군도와 솔로몬 각 15%, 나우루 9%가 줄

어드는 반면, 키리바시는 15%, 쿡 아일랜드는 18%는다.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과학 자문기구인 SPC는 IPCC(기후변화국제협의체) 시나리오 및 영향 분석 결과 2050년까지 수온 2.7도 상승 시 적도 태평양 도서국 참치 자원량이 연평균 3.4%, 4.4도 상승 시 20.2%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통조림용 참치인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는 서에서 동으로, PNA 연안국 EEZ에서 공해로, 열대에서 북위로 이동하며, 횡감용 참치인 눈다랑어는 용존산소량이 적은 심층부 적응이 가능한 덕에 PNA EEZ에서 양호한 상태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자원량·생산량 변동이 기후변화 탓인지는 명확지 않으나 모든 지역수산관리기구는 기후변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상설 의제로 삼았다. 즉, 자료수집·분석과 과학조사를 통해 기후변화가 목표종, 부수종과 동일 생태계 종에 미치는 잠재 영향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적응, 회복 및 영향 완화를 위한 조치와 어업이 미치는 영향과 그 감소·완화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WCPFC와 IOTC(인도양참치위원회)는 이에 덧붙여 “기후변화가 소규모개발도서국(SIDS)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식량안보 및 생계를 감안하고, 보존관리조치 채택 시 관련 과학정보를 고려할 것”을 답았다. WCPFC는 기후변화가 기존 안정적 어업에 영향을 미치고 어획노력이 증가하지 않아도 자원량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고려, 벌써부터 가다랑어 자원 관리전략에 중서부태평양 온난화 영향을 반영하였다.

PNA는 20여 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 2008년 WCPFC를 통해 “기후변화가 미래 참치 자원량과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어, 권리기반정책, 즉 PNA 회원국 간 총 조업일수·권한을 확정·분배



후 각자 조업국에 판매하는 VDS를 도입했고, 기후변화로 재정수입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최근 과학조사대로 자원이 동쪽과 북쪽, 공해로 이동할 시 기존방법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공해조업 권한 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각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는 GDP의 50% 이상 또는 경제 전반을 수산업에 의존하는 포클랜드나 PNA만의 우려가 아니다. 연근해와 함께 우리 어업의 양대 축이자, 대중성 어종 공급과 수출에 기여하는 원양 업계와 대한민국 국기를 걸고 당당히 해외영토를 누비는 선박, 선원과 그 가족, 모든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에 대한 도전인 만큼, 아래와 같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길 희망한다.

원양어선을 활용하거나 어장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후·어장환경 변화와 자원이동 예측 등 과학조사를 시급히 하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수산관리기구 자원평가와 어획통제규칙 등 조업권한에 영향을 주는 어업관리전략 수립 시 기후변화·환경요소를 포함하므로 이 과학조사를 토대로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기여 및 참여하고, 자원보존관리조치 재·개정 시 기후변화에 따른 노력량 재설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자원관리 대응을 위한 “권리기반어업관리”가 대세이며, 더 이상 기여 없이 어획만 할 수 없으므로 연안국 역량 강화와 자체 어업 개발 도움 등 **국가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투발루 어촌뉴딜 ODA 프로젝트가 좋은 예이며, 이를 계기로 키리바시 등 주요 자원보유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BBNJ 협정 채택으로 공해 보호 움직임이 커지고, 어

장국은 수입 유지차 어선을 EEZ로 유인하기 위해 또는 미래 수산자원 분포변화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공해조업을 규제하는 대신 자국에는 예외를 요구할 것이므로 **국제수산관리 회의 시 합리적 결과 마련을 위한 전략과 협상력이 필요하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영향을 지속가능어업관리에 통합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기후변화 영향 경감 비용을 어선이 떠안아 총 경비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박이 경제성 부족으로 어장을 떠나면 그간 쌓아온 역사와 기여 실적이 사라지고 어장에 재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해외산업의 특징이므로 **최악의 경우에도 어업을 유지케 할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원양산업은 해외에 식량기지를 뒀 까다롭고 엄격한 가지각색의 국제규범에 따라야 하니 대체로 알아서 잘 한다. 어장개척에서 연안국과의 협상, 모든 조업 활동 과정과 국내·외 마케팅 그리고 세계 바다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상황에 즉각 대처해야 하니 도움을 청하기 전에 스스로 책임 져왔다. 여기에 산업의 기반이 해외이고, 선장 등 직접 종사자들이 외국에 있어서인지 원양 산업에 관한 관심이 덜한 듯하다.

다른 나라들은 원양산업에 식량자급률 증대와 글로벌 식량 경쟁 이상의 의미까지 담는다. 시장국, 항구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확보와 정치·외교 영향력까지 염두에 두어 자국 선단에 재정·행정지원을 쏟아붓는다. 지금도 세계 곳곳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원양산업계가 기후변화라는 환경적 불확실성을 뚫고 적응과 회복을 통해 굳건히 산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수산신문 2024년 6월 28일자 수록〉



어두육미의 대표어종, 대구

지방함량과 열량이 적으며 숙취해소와 다이어트에 도움

대구는 국가 간 자원전쟁에서 아이슬란드와 영국 간의 1958~1976까지 3차에 걸쳐 발생한 전쟁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는 입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며, 머리가 크다고 해서 대두어(大頭魚)라고도 불린다. 명태와 같이 한류성 어종인 대구는 전 세계에 30여 종이 서식하며, 연어와 같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이다. 우리가 즐겨 먹는 대구는 러시아 오희츠크해에서 서식하다가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남해까지 내려온다.

먹성이 대단한 포식성 어류로 치어기에는 플랑크톤을 잡아먹다가 덩치가 커지면서 고등어, 청어, 가자미, 정어리, 전갱이, 꽁치 등의 어류와 오징어, 문어 같은 두족류, 새우와 같은 갑각류, 갯지렁이 같은 환형동물 등 눈에 띄는 생명체는 모두 잡아먹는다. 대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먹성이 대단하여 자기 몸의 2/3가 되는 먹이도 그대로 삼키는 대식가로 끊임없이 먹으며, 물이 흐려 먹이가 보이지 않을 때도 아래턱 중앙에 한 개의 수염을 이용하여 촉각으로 먹이를 찾아 먹으며, 이 수염으로 명태와 생김새가 구별된다.

겨울철 대표 어종으로 하얀 눈을 상징하며 육질이 눈처럼 희다. 대표적인 흰살 생선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즐겨 먹어왔다. 지방함량이 어류 평균 3%보다 훨씬 적은 100g당 0.4g으로 붉은살 생선보다 지방 함량이 적다. 열량도 100g당 70kcal(사과 한 개)로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권장되는 식품이다. 이처럼 지방함량이 매우 낮아 생선 고유의 비린내가 적고 글리신, 글루탐산 등 유리아미노산과 이노신산이

내는 시원한 맛으로 숙취해소에 최적의 음식이다. 여기에 곤이라고 부르는 수컷의 정소가 대구탕의 진미를 더해 줌으로 알을 밴 암컷보다 수컷의 값이 더 비싸다. 대구의 정소는 맛이 매우 좋아 고급요리로 취급받으며, 무기질과 아르기닌이 다량 함유되어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대구를 즐겨 먹는 아일랜드, 캐나다 등의 서구인은 머리를 잘라 버리고 스테이크와 피쉬 앤 칩스 등 여러 요리로 먹지만 우리는 머릿살만큼 맛이 뛰어난 부위도 없다. 머릿살 중에서 아가미에 붙은 불살을 최고로 치며, 어두육미(魚頭肉尾)란 말이 대구 불살에 반해 나왔다는 설이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 60~70cm 크기의 대구 한 마리 가격이 20~30만원 정도로 귀한 수산물이었다. 이에 대구 자원회복을 위하여 1987년부터 수정란 방류사업을 시행하였다.

대구 자원 회복 사업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990년 우리나라의 전체 어획량이 487톤에 불과하던 대구는 2014년에는 1만 3,402톤의 어획을 달성하며 자원 회복을 달성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한해 4,975~9,520톤의 어획을 꾸준히 생산하였으며, 수요에 부족한 물량은 러시아 자국어선도 조업을 꺼리며 조업 환경이 지독히 험준하지만, 청정한 베링해 북쪽 수역에서 1,622~4,822톤의 자원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수요를 보충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의 대구 생산량은 6,300톤이었으며, 원양산 생산량은 1,487톤으로 지속적인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오징어볶음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오징어 3마리, 양파 1/2개, 당근 1/4개, 청고추 2개, 홍고추 1개, 대파 1줄기, 식용유 2큰술, 참기름 2큰술
- 양념장 재료: 고춧가루 3큰술, 설탕 1큰술, 매실청 1큰술, 간마늘 1큰술, 진간장 3큰술, 고추장 1큰술, 후추 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 내장과 껍질을 제거 후 칼집을 내 한입 크기로 자른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준다.
- ② 양파는 채 썰고, 당근은 반달 모양으로 청고추, 홍고추, 흰파, 대파는 어슷 썰고 쪽파는 송송 썬다.
- ③ 양념장 재료를 넣고 섞은 후 1의 오징어와 2의 파와 쪽파 제외한 나머지 야채를 섞어 준다.
- ④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파의 흰 부분을 넣어 볶아 파기름 만든다.
- ⑤ 4의 팬에 3의 오징어와 야채를 센불에 빠르게 볶아준다.
- ⑥ 야채와 오징어가 익으면 참기름 넣고 쪽파를 올려 완성한다.



9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39달러

9월 10일 기준 625달러

9월 10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0.89달러, WTI 가격은 65.75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69.19달러를 기록하였다.

9월 10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625달러로 8월 12일(691달러) 대비 약 10% 하락하였다.

9월 평균(9.2~9.10) 가격은 639달러로 전월 평균(8.1~8.30)인 687달러 대비 약 7% 하락하였다. 전년 9월 평균보다 33% 하락하였고, 전전년 9월과 비교하면 34% 하락하였다.

2024년 평균(1.2~9.10) 가격은 756달러로 전년(1.1~12.29) 평균 대비 5%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27% 하락하였다.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재차 두

드러져 주식시장 또한 매도 우위 흐름을 보였다. 브렌트유 가격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선을 밑돌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월간 보고서에서 중국 성장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을 기존 하루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시장 예상만큼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원유 선물에 매도세가 유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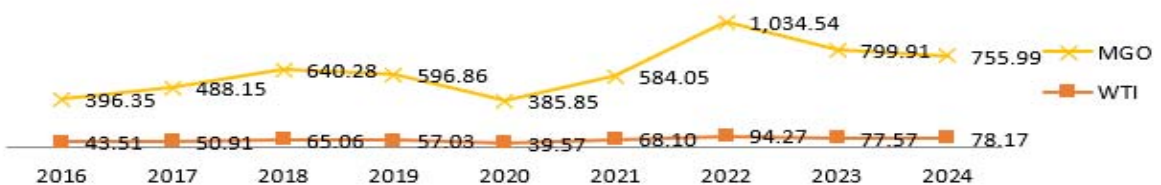
중국의 세관인 해관총서가 발표한 8월 무역 통계에서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미국에서도 경기침체 공포가 계속됐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수석 시장 분석가인 필플린은 “노동 시장 둔화, 소비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IATTC 연례회의서 참다랑어 어획 한도 확대 합의 현행 열대참치 보존관리조치 2년 연장, 금어기 일수 등 합의

9월 2일부터 6일까지 파나마에서 진행된 전미열대 참치위원회(이하, IATTC)의 제102회 연례회의에서,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 한도가 합의되었다.

2025년부터 2026년 동안, 멕시코는 현행 한도인 6,973톤에서 1만 763톤으로, 미국의 한도는 1,017톤에서 1,822톤으로 변경되었다. 7월의 중서부태평양 참치위원회(이하, WCPFC) 북소계위원회와의 합동 작업반 회의에서 합의한 한도가 채택되었다.

2025년부터의 IATTC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는 합동 작업반 회의에서 합의한 WCPFC 대형어 관련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도의 1.5배를 채택하였다. 여기에 한국에는 연간 300톤분이 추가되고, 멕시코와 미국에 각각 150톤씩 배분되었다. 2년간 합산하여 양국에 총 300톤씩 추가하는 형태로 태평양 관리기구의 동서 균형을 조정하였다.

IATTC 전체로는 현행 7,990톤에서 4,595톤이 증가되는 1만 2,585톤으로 한도가 결정되었다.

IATTC 연례회의에서는 또한 참다랑어의 감시 단속에 대해 각국의 실시 사항을 공유, 내용을 확인하여 2026년까지 통일적인 조치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26년까지 어획증명제도(CDS) 설립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열대 참치(눈다랑어, 황다랑어)의 보존관리의 경우, 갱신된 자원 평가에서 남획 상태도 과잉 어획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부터 도입을 개시한 금어기 연장 등의 조치가 특히 소형어의 어획 압

력 감축에 공헌하였다고 평가받았다. IATTC 사무국이 선망선 양륙시에 어획물의 조성이나 연령 등을 확인하는 관리 프로젝트 등 또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선망선의 경우, 금어기를 전 선박 72일로 하되, 지난해 황다랑어 어획량이 1,200톤 이상이었던 선박은 82일, 1,500톤 이상인 선박은 85일, 1,800톤 이상인 선박은 88일로 연장한다. FAD(집어장치) 사용수는 적당 340개 이하를 유지하였다.

IATTC 수역에서 일본 선박의 선망 조업은 없다. 연승선의 눈다랑어 어획 한도는 연간 3만 2,372톤으로 유지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열대 참치 어종에 대한 현행 보존 조치가 2년 더 연장되었다.

이 연장 조치에는 황다랑어의 개체군 상태를 검토하여 개체군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어기 단축 또는 코랄리토(계절적 조업 금지 수역) 해제와 같은 어업 제한을 완화 평가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에콰도르가 제안한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남방 날개다랑어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다른 주요 조치로는 청새리상어와 두 종의 진환도 상어에 대한 상어 보존 규정을 강화하고 개체 수 현황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다.

한편, 연례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전자모니터링(이하, EM)에 대한 잠정 최저 기준이 채택되었다.

현재 선망선의 옴서버 커버리지는 100%이나, 연



승선은 5%에 불과하다. EM 시스템은 IATTC의 기존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두 업종의 선박으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EM 적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 기준은 IATTC가 EM 워크숍에서 개발한 작업 계획과 일치하는 영구적인 기준을 채택할 때까지 임시로 IATTC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전자 감시 데이터의 적절성을 위한 것이다.

관련 초안은 기술 표준, 최소 데이터 필드, 데이터 저장 방법, 선장의 역할, 시스템 요구 사항, 카메라를 설치할 선상 위치를 제공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기존 IATTC 데이터 요구 사항 준수에 사용할 수 없다. 자국 국적 선박에 EM 시스템을 구현할 CPC(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는 이 최저 기준의 필수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WCPFC는 현재 채택된 최소 기준이 없는 유일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이다. WCPFC에는 IATTC와 겹치는 관할 수역 및 등록 선박이 존재한다.

연례 회의에는 23개 안이 제시되었다. 회의 중 FAD 관리에 대한 권장 사항, 선박 등록에 대한 제안,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 상어 보호 조치 및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등의 문서에 대한 수정 사항이 공개되었지만 위원회는 추가 진행이나 채택을 발표하지 않았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9월 11일, UndercurrentNews, Atuna, 2024년 9월 9일

참치 선단 분석 결과 소폭 증가

대형 선박수는 감소, 용적은 증가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이하, ISSF)의 최신 전 세계 대규모 참치 선망 선단 현황에 따르면 어획 능력은 3% 증가했지만, 선박의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SSF의 분석에 따르면 대규모 선망(이하, LSPS) 선박으로 정의된 약 650척이 열대 참치 어종을 어획하고 있다. 이는 작년보다 0.3%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총 용적은 86만 3,000m³로 작년보다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망어업은 전 세계에서 매년 어획되는 520만 톤의 참치 중 약 66%를 어획한다. ISSF에 따르면, 새로운 선박이 건조되거나 침몰 또는 폐선으로 인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선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LSPS 선박(어창 용적 335m³ 이상인 선박)의 수는

변동이 있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에 발표된 이전 내용 이후 2023년 7척, 2024년 1척을 포함하여 2012년 이후에 건조된 20척의 LSPS 선박이 열대 참치 RFMO 인증 선박 목록에 추가되었다. 새로 건조된 선박 중 약 절반이 인도네시아 국적이며, 335m³ 기준에 근접한 어창 용적을 보유하고 있다.

LSPS 선박 수는 650척으로 작년에 보고된 652척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용적은 86만 3,000m³으로 1년 전 보고된 84만 1,000m³에서 증가하였다.

세계 선망어선의 전체수는 2023년 보고서의 1,837척에서 현재 1,939척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 출처: FiskerForum, 2024년 8월 19일



중서부태평양 7월 선망 어획량, 12만 7,000톤

중서부태평양 7월 선망 전재량, 8만 2,300톤

중서부태평양 7월 선망 어획량은 FAD 금어기로 인하여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공 허브인 방콕행 공급은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수역과 공해의 전체 어업 노력량은 전월 대비 4% 감소한 3,739일이다. 전년도 7월과 비교하면 7% 증가하였다. 태평양 도서국 EEZ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3,646일로, 전월 대비 99일 증가하였다.

조업은 주로 중서부태평양 서부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EEZ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2019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 EEZ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전체 2위인 748일로, 6월 대비 7% 증가하였다. 공해와 키리바시, 나우루 수역에서의 조업 일수 또한 증가하였다. 토켈라우 수역에서의 조업은 6월, 7월 모두 없었다.

7월 중서부태평양 어획량은 총 12만 7,000톤으로, 가다랑어 어획량 감소의 영향으로 6월 대비 17% 감소하였다. 가다랑어의 7월 어획량은 10만 9,200톤으로, 전년도 7월 대비 21% 감소하였다. 금어기로 인하여 7월에는 오직 부상군조업만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최근 수년간의 7월 어획량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PNG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전체의 61%인 7만 7,470톤이었다.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2만 1,590톤으로, 6월 어획량인 3만 8,000톤 대비 감소하였다. 키리바시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1만 1,430톤으로 전월과 거의 비슷하였고, 공해에서의

어획량은 수역 중 4번째인 1만 160톤이었다.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의 7월 어획량은 전월 대비 20% 감소하였다. 그러나 가다랑어 부상군조업이 좋은 어획량을 거두면서 중서부태평양 FAD 금어기의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동안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은 일일 평균 24톤의 열대 다랑어류를 어획하였다. 이는 올해 월간 일일 평균 어획량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2023년도 7월 일일 어획량과 비교하면 33%나 많은 수준이다. 선망선단의 어획량은 공해와 특정 PNA 수역에서 특히 좋은 편이었다.

공해에서의 7월 일일 어획량은 약 70톤이었다. 7월 동안 선단은 중서부태평양 서부 수역에서 조업을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서 많은 어획이 기록되었다. PNG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38톤에 달하였으나, 6월에 비하면 14% 감소한 수치이다.

투발루 수역에서는 6월 대비 200%나 증가한 일일 37톤이 어획되었다.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는 30% 감소한 일일 39톤이 어획되었다. 5~7월 동안 토켈라우에서는 어획이 보고되지 않았고, 팔라우에서는 7월 동안 어획이 보고되지 않았다.

가다랑어 7월 일일 어획량은 29톤으로, 6월 대비 24%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7월에 비하면 매우 많은 수준이며, 2019년~2023년 7월 일일 어획량 평균과 비교하면 27%나 많다. PNA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초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35톤에 달한다. 이는 방콕 가공 허브에 많은 공급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선박들이 부상군조업을 하였기 때문에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대형(9kg 이상)과 소형 모두 증가하였다. 황다랑어 대형과 소형의 7월 일일 어획량은 각각 1.8톤, 2.6톤으로 91%, 15% 증가하였다.

눈다랑어는 FAD로 혼획되기 때문에 7월 동안의 일일 어획량은 좋지 못하였다. 대형 및 소형의 7월 일일 어획량은 각각 13%와 60% 감소한 0.1톤과 0.3톤이다.

한편, FAD 금어기로 인하여 중서부태평양 7월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PNA 항구에서의 7월 전제 활동은 감소하였다. 가장 많은 전제 활동이 이루어진 곳은 PNG와 마이크로네시아였다.

7월 동안 PNA 수역에서의 전제량은 총 8만 2,300톤이다. 이는 5년 만의 월간 전제량 최고치(9만 2,500톤)를 기록하였던 6월 대비 12% 감소한 수치이

다. 보고된 전제 활동의 수는 총 129회로, 6월 전제 횟수인 131회 대비 2% 감소하였다.

중서부태평양 7월 어획량은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8월 15일에 종료된 FAD 금어기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그러나 선망선단은 부상군(free school) 조업을 통하여 2023년도 동월 대비 더 많은 양의 참치를 어획하였다.

PNG 항구(마당, 라바울, 라에)에서의 전제량은 약 3만 4,000톤으로, 전체 전제량의 약 40%이다. 두 번째로 많은 전제가 이루어진 마이크로네시아에서의 전제량은 약 3만 톤 이상으로 전월 대비 약 1/3 감소하였으나, 7월 PNA 항구 전체 전제량의 약 38%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은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마셜제도는 각각 전체 전제량의 12%, 5%, 6%를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22일자, 23일자, 26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280달러로 하락

3주 전 대비 7% 하락

최근 수주간 방콕 가다랑어 원어 가격이 공급량 증가로 인하여 급락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8월 하순 가격 대비 톤당 100~120달러 하락하였다. 가다랑어 계약은 톤당 1,250~1,280달러 선에서 체결되고 있다. Atuna는 9월 초 방콕 가다랑어 가격을 톤당 1,280달러로 기록하였다. 이는 3주 전 가격인 톤당 1,380달러 대비 7% 하락한 수치이다.

8월 말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FAD 금어기가 끝나고 원어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락하였다. 현재 방콕 항구로 향하는 어획물의 양은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에 따르면 FAD 금어기로 인하

여 어획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우루협정 당사국(PNA) 항구에서 약 8만 2,000톤의 어획물이 전제되었다. 이 물량은 현재 방콕으로 향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하역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8월 초 선망선단은 평년 이상인 일일 35톤 이상의 일일 어획량을 기록하였고, 향후 수주간 방콕에 많은 참치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공업체들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요구하고 있다. 수개월간의 많은 공급으로 인하여 재고가 많기 때문에, 가공업체의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Atuna, 2024년 9월 6일자



동부태평양 2023년 어획량, 사상 최고 수준인 76만 톤 선망 FAD 어획량 영향

IATTC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태평양의 2023년 다랑어류 총 어획량은 최고치인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어획량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3년 동안 전 업종에서의 주요 상업 어종 총 어획량(폐기 포함)은 76만 470톤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이자 1994년 이후 기록된 최고치이다. 2023년도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총 어획량은 76만 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망 어업 가다랑어 어획량은 총 38만 9,781톤(폐기 1,317톤 포함)이며, 에콰도르와 멕시코 선망의 어획량은 전년 대비 각각 20%, 16% 증가하였다. 선망 어업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체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망 어업은 보고된 전체 어획량

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3년 동안 돌고래 연계 조업(이하, DEL)으로 어획된 황다랑어의 양은 약 20만 톤(최고치)으로 증가하였고, 가다랑어 어획량은 약 9,500톤을 기록하였다. 멕시코 선망은 주로 DEL로 조업한다.

FAD는 1990년대 중반 도입된 이후 부유형 어구 연계 어업(이하, OBJ)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FAD는 현재 대형 선망선(6등급: 용적량 363톤 이상)의 부유물 어구 중 약 97%를 차지한다. 선망은 2023년 동안 약 43만 6,000톤의 기록적인 톤수를 어획하였다.

부상군 조업 어획량은 2008년부터 변동을 보였지만 2022년에 크게 감소한 후 2023년에는 약 9만 톤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30일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50달러

4주 전 대비 4% 상승

소식통에 따르면 만타 가다랑어 원어 거래는 대부분 톤당 1,350달러에 체결되고 있다. 4주 전 가격인 톤당 1,300달러 대비 4% 상승하였다.

한 주요 가공업체 측에 따르면, 만타 가공업체의 수요는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획량도 여전히 양호하여 공장의 생산량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양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8월 가다랑어는 톤당 1,700~1,900

달러 선에 거래되었다. 2023년 8월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920달러였다.

금어기(veda)는 7월 29일에 시작되어 10월 8일에 종료된다. IATTC에 따르면 첫 금어기 동안 49척의 에콰도르 국적 선박이 조업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선박 중 절반 이상이 대형 6급선(363톤 이상)이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21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7월 수입량 대폭 증가

가격 하락세 지속...kg당 700엔 근접

일본 재무성의 무역 통계에 의하면, 참치류의 7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649톤(전년 동월 대비 4% 증가), 수입액 10억 2,700만엔(7%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7,668톤(63% 증가), 수입액 169억 4,300만엔(73% 증가), 가공품 수입량 4,181톤(2% 감소), 수입액 37억 3,100만엔(유지)이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수입량은 6,025톤(86% 증가)으로 증가하였다. 월간 수입량이 6,000톤을 넘어선 것은 2022년 6월(6,653톤)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인 kg당 단가는 기사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그래프 상으로 7월 가격은 전월보다도 하락하여 kg당 700엔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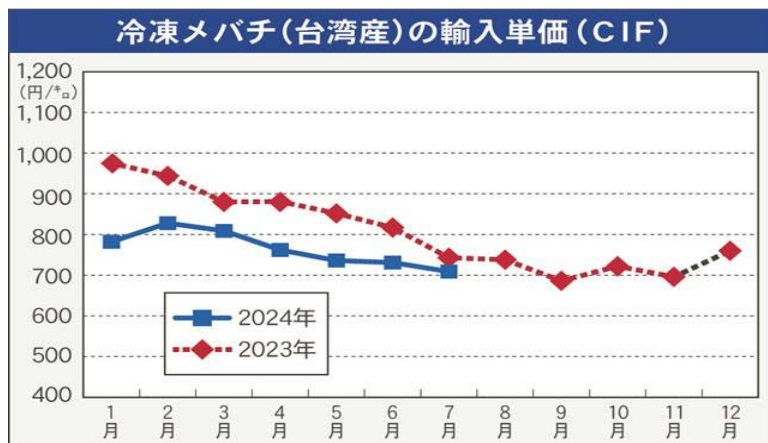
초저온 냉동고의 공간이 나기를 기다리는 대기선으로부터의 하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연말 판매 경쟁에 시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

며, 소비 자체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지중해 연안국산 양식 참다랑어 냉동 필렛 수입량은 2024년 시즌 누계(2023년 11월~2024년 7월)가 2만 4,137톤으로 2023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였다. 올해는 홍해 정세에 따른 희망봉 루트 우회 및 냉동고 문제로 일본 반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7월 들어서도 2,512톤이 입하되었다. 다만, 운반선의 입선은 7월로 종료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일본 도쿄 도요스 어시장에서의 7월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의 상장 마릿수는 1만 2,594마리로, 전년도 동월 대비 5%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경·태평양산 눈다랑어의 증가(中値, 가장 거래량이 많은 가격대)는 kg당 970엔(전년도 동월 대비 6% 하락)으로, 6월 가격인 kg당 999엔보다 하락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9월 5일, 8월 14일



(그림: 일본의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2023~2024년 월간 수입 가격 그래프)



日 냉동 참치류 7월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297톤 수입

< 2024년 7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날개 다랑 어	한국	25	6	34	4	77	23	214
	대만	330	12	490	458	637	148	711
	바누아투	-	-	121	740	333	104	23
	기타	109	299	572	235	59	349	367
	소계	464	317	1,218	1,437	1,106	623	1,315
황다 랑어	한국	261	148	76	265	239	29	249
	중국	425	472	624	375	106	394	437
	대만	7,98	970	1,118	1,742	1,172	891	1,259
	필리핀	-	-	49	-	-	49	49
	인니	-	-	-	-	-	-	1
	미국	-	-	-	-	-	-	-
	바누아투	36	26	212	152	139	211	144
	피지	-	-	13	-	-	-	-
	키리바시	-	-	-	27	-	17	-
	마셜제도	-	-	45	-	-	-	-
	기타	1,359	630	289	1,658	954	397	1,211
소계	2,869	2,245	2,426	4,220	2,610	1,989	3,351	
눈다 랑어	한국	259	225	297	126	484	118	297
	중국	202	755	808	980	385	582	796
	대만	1,928	1,438	2,319	2,508	1,894	1,707	3,255
	필리핀	-	-	-	0	-	-	-
	인니	-	-	-	-	-	-	-
	세이셸	470	461	119	693	389	338	1,421
	바누아투	52	17	378	442	259	665	177
	기타	110	4	378	169	147	48	80
	소계	3,020	2,901	3,974	4,917	3,559	3,457	6,025
남방 참다 랑어	한국	-	158	17	-	-	-	-
	대만	95	143	1	6	3	-	-
	호주	-	-	19	-	-	-	200
	소계	95	301	37	6	3	-	200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9월 5일자



중서부태평양 23년 다랑어 어획량, 약 263만 톤 전년도 대비 3% 감소...황다랑어 어획량 역대 2위

중서부태평양 다랑어류 2023년 어획량 최신 추산치가 공개되었다. 중서부태평양 조업 어선들은 2023년 총 263만 858톤을 어획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 감소한 수치이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해당 내용은 8월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 과학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공개된 '2023년도 중서부태평양 다랑어류 어업 개요'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해당 수역 과학자, 어업 관리자, 정책 입안자에게 있어서 최대 화두는 참치 자원 상태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최대 연간 어획량(297만 3,586톤)을 기록한 이후 어획량은 감소 추세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23년도 연간 어획량은 12% 감소하였다.

2023년 중서부태평양 전체 어획량 중 70%인 184만 3,100톤은 선망 어업으로 어획되었다. 연승 어업 어획량은 23만 4,894톤(전체의 9%), 낚시대(pole-and-line) 어업은 14만 3,431톤(5%), 트롤

어업과 장인 어업 등은 16%를 차지하였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74만 6,913톤으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황다랑어 연간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최고 기록은 2021년 기록된 75만 4,370톤이다. 보고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데이터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에서는 4~9월 동안 대형 황다랑어(9kg 이상) 일일 어획량이 높은 수준이었고, 6월에는 일일 9톤으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눈다랑어 어획량은 14만 309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5%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대~2020년대를 통틀어 최저치이자 지난 2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9만 5,934톤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하였고, 전년도 어획량과 비교하면 2,741톤 감소하였다. 2021~2023년 동안 중서부태평양 연간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지난 20년을 통틀어 최저치이자, 2002년의 기록적인 최소 어획량인 14만 8,051톤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16일자





세이셸 황다랑어 8월 가격, 톤당 1,450유로로 상승 7월 대비 5.5% 상승

인도양에서의 참치 어획량은 여전히 부족하다. 선망 선단은 사업적으로 충분히 유지 가능한 수준의 어획량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다랑어 가격은 올해 초 하락세였으나, 어업이 계속 부진하면서 4월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달 인도양 가공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보였고, 가다랑어는 톤당 최대 1,470유로(약 1,642달러)에 거래되었다. Atuna는 8월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을 톤당 1,450유로(약 1,619달러)로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거래가 톤당 1,450유로 전후에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은 7월 가격인 1,375유로에서 약 5.5% 상승한 수치이다.

현재 인도양 가다랑어의 가격이 가공 허브 중 가장 높은 반면, 방콕과 만타에서의 가격은 각각 톤당 1,380달러와 1,350달러로 훨씬 낮다.

인도양 서부의 3개 주요 통조림 가공 공장(세이셸 IOT, 마다가스카르 Peche, 모리셔스 Princes)은 공장을 전면 가동하고 원어 재고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에 의존한다. IOT와 Peche 공장의 소유주인 타이유니온과 Parlevliet & Van Der Plas사는 다른 대양에 위치한 가공 공장을 대체 선택지로 두고 있으나, Princes는 인도양 참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격동적이라고 묘사하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어업 회사들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EU 선망선 중에서 조업을 중단하거나 선원들을 하선시킨 선박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올해 수개월간 어획량이 연달아 좋지 못하였던 대서양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다. Bolton사는 2024년 초 자회사인 참치 어업 회사 Via Ocean사의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현재 인도양에는 24미터 이상 길이의 선망선 352척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270척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톤수의 범위는 100톤부터 241톤까지이다. 스페인(14척), 프랑스 및 프랑스령(14척), 세이셸(13척), 일본(10척) 국적 선박은 보다 큰 1,000~4,400톤급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선망선단 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여름 어기의 종료가 다가온 시점에서, 유럽에서 신선 대형 황다랑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식당에서 참치 스테이크의 메뉴가 줄어들면서 세이셸 황다랑어의 가격은 톤당 2,300유로(2,568달러)로 2% 하락하였다. FAD로 어획된 통조림용 소형 황다랑어의 가격은 하락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26일자



태국 24년 원어 수입, 지난 5년간 최고치 기록

한국산 가다랑어 원어 수입 급증

태국의 올해 2분기 냉동 참치 원어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태국의 2024년 상반기 수입량은 지난 5년을 통틀어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한국산의 수입량은 전년도의 2배 이상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주요국 선단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와중, 몰디브산의 수입량은 급감하였다.

태국의 2024년 상반기 원어 수입량은 41만 600톤으로, 가다랑어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 1분기 대비 31% 증가하였다. 반면 평균 수입 단가는 18% 하락한 톤당 1,563달러였다.

수입 단가 감소는 가다랑어 어가 하락에 기인하였다. 2023년 2분기 동안 가다랑어 어가는 톤당 2,000~2,050달러 선이었으나, 2024년 2분기 동안의 어가는 1,315~1,600달러 선으로 급감하였다.

태국의 1분기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34만 8,291톤이다. 황다랑어의 수입량은 4만 2,164톤으로 전년도 대비 8% 증가하였으나, 눈다랑어와 날개다랑어는 각각 44%, 15% 감소하였다.

대만산 수입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30% 증가한 7만 432톤으로, 이 물량의 대부분은 가다랑어였다.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1,581달러로 전년도 동기 대비 404달러 감소하였다. 한국산과 미크로네시아산의 수입량은 각각 6만 4,809톤, 6만 27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3만 톤 이상 증가하였다.

또 다른 큰 변화는 몰디브산의 수입량 감소이다.

채낚기(pole-and-line) 선단을 보유한 몰디브산의 수입량은 2023년 상반기에 최다 수준이었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대비 45% 감소한 2만 4,845톤에 그쳤다. 몰디브산의 평균 수입 단가 또한 전년도 대비 17% 하락한 톤당 1,549달러를 기록하였다.

마셜제도산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수입량은 전년도 동월 대비 162%나 증가한 2만 864톤을 기록하였다. 평균 단가는 톤당 1,614달러로 모든 공급국을 통틀어 최고치였다.

한편, 태국 가공업체가 올해 상반기 동안 수입한 가다랑어 원어의 양은 2023년 동기 대비 무려 41%(10만 1,585톤) 증가하였다. 한국, 미크로네시아, 투발루, 마셜제도 국적 선망선에서 어획된 원어의 양이 특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다랑어의 수입 단가는 2023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다.

태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4만 8,291톤의 가다랑어 원어를 수입하였다. 이는 2016년 이후 최대치인 2021년 수입량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평균 가격은 전년도 1분기 동안 톤당 1,700~2,050달러 범위였으나, 올해 상반기 평균 단가는 18% 하락한 톤당 1,468달러이다. 2024년 상반기 동안의 수입 가격 범위는 톤당 1,315~1,600달러로 하락하였다.

원어 수입 증가는 태국의 통조림 참치 수출량 증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상반기 동안 원어 가격이 높았고 태국의 통조림 수출이 위축되었



던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태국 애완동물 사료 사업도 2024년 상반기에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태국에 2024년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은 원어를 공급한 선단은 한국으로, 한국산의 수입량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3만 8,435톤 증가한 6만 2,901톤이며, 수입 단가는 18% 하락한 톤당 1,458달러이다.

2023년 상반기 태국 최대의 참치 원어 공급국이었던 몰디브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만 1,702톤을 태국에 수출하였다. 평균 단

가는 톤당 1,489달러로, 전년도 대비 362달러 하락하였다. 이러한 무역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도양의 참치 어획량이 올해 30~40%나 급락하여 몰디브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태평양 도서국 선단의 태국행 원어 수출은 파푸아 뉴기니(PNG)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투발루는 가다랑어 원어 최다 공급국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9일, 8월 30일

美 상반기 참치 통조림 수입액, 약 3억 달러

수입량 6만 6,378톤으로 전년 수준과 거의 동일

미국의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올해 1~6월 동안 큰 증가 없이 유지되었다.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입이 특히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은 2024년 상반기 동안 총 6만 6,378톤의 참치 통조림을 수입하였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대비 2% 증가한 수치이다.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4,442달러로, 전년도 상반기 가격 대비 2% 상승하였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2억 9,488만 달러이다.

지난 5년간의 상반기 수입량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사재기 열풍으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에 수입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수입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산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3만 6,473톤이다. 멕시코산의 수입 단가는 10% 상승한 톤당 4,710달러지만, 수입량은 7,908톤으로 전년 대비 1%만 감소하였다.

베트남산은 수입 단가가 전년 대비 17%나 상승

한 톤당 4,779달러를 기록하였음에도 수입량은 9,150톤으로 전년 대비 42%나 증가하였다. 이 물량의 일부는 Wild Planet 브랜드의 날개다랑어 제품이다.

인도네시아산의 상반기 수입량은 지난 3년간 꾸준히 감소 중이다. 2024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산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16% 감소한 3,507톤이다.

에콰도르산 수입량은 565톤으로, 전년도 대비 85%나 감소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12%나 상승한 수입 단가(톤당 5,246달러)의 영향을 일부 받았을 수 있다.

필리핀산 수입량은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스페인산의 수입 단가는 톤당 3,862달러로 가장 저렴했는데, 이는 스페인산의 수입량이 760톤으로 32% 증가한 이유일 수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21일



PNG, 주요 가공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마련 참치 어획물의 가치 향상 기대

PNG 수산해양자원부 장관은 2025년에 국가 참치 양식 전략(NTDS)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NTDS는 견고한 참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 전략은 참치 어업 및 가공 산업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정책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산청(NFA)이 다른 일선 정부 부처 및 기관과 함께 취할 조치의 전반적인 틀을 제공한다.

최종 목표는 PNG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군도 수역 내에서 참치 어획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NTDS는 수산전략계획 2021~2030에 따라 PNG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참치 허브로 만들려는 국가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포럼수산기구(FFA)와 태평양 도서국 포럼 지도자들이 승인한 동뉴브리튼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지역 참치 어업 및 가공 산업에서 PNG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NTDS는 PNG 경제 내에서 참치 어업의 가치를 더 많이 유지하고 참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우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국내화 의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FA를 안내하도록 설계된 행동 지향적인 문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국내화 전략이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PNG의 어업 수역과 서부태평양 및 중부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되고 지속 가능한 참치 어

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 가공을 위해 참치 어획량을 늘리려는 PNG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PNG에 기반을 둔 참치 어선과 가공 회사가 필수적이다.

- 기존 정부 정책 한계와 참치 공급망의 비효율성은 가공 공장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이는 결국 고용 기회, 비즈니스 성장,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수산해양자원부와 NFA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이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6가지 전략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간소화된 수산 규제 및 정책 프레임워크: 참치 어업 및 가공업체에 대한 혜택과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 참치 가치 사슬 생산성 향상: 공급망 제약을 해결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생산성을 향상한다.

- PNG 국적선의 접근성: PNG 국적선이 PNG 외부의 어업 수역에 접근할 방안을 마련한다.

- 글로벌 시장 접근: PNG 가공 참치 제품에 대한 대체 및 신흥 세계 시장에 대한 면세 및 할당량 없는 접근을 확보한다.

- 부문별 국영 기업: 참치 산업 내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 어획물 활용에 중소기업 참여: 참치 어선의 부산물 활용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NTDS를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의 하나로



모든 참치 가공업체와 관련 어선은 올해 7월에 NFA와 체결한 합의각서(MoA)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MoA를 통해 PNG 국적 선박과 현지에 기반을 둔 외국 선박은 참치 어획물의 양륙 및 가공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Start Fish VDS 패키지에 따라

선박 일수를 확보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면 어업과 가공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PNG 자원 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라고 장관은 말하였다.

* 출처: Post-Courier.com, 2024년 8월 30일

PNG, 어업 투자 유치 위하여 국유회사 설립

태평양 해양자원 관련 이익 극대화 목적

파푸아뉴기니(이하, PNG)는 참치 어업 및 기타 해양 자원에 대한 국가의 상업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국유회사인 수산자원유한회사(FCL) 설립을 추진 중이다.

Jelta Wong PNG 수산부 장관은 EMTV Media에 “FCL은 PNG의 역할을 단순히 해당 부문을 관리하고 상업적 투자를 추진하는 수준을 넘어 상업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으로 전환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Wong 장관은 FCL이 어업 및 가공 부문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국에서 참치와 기타 수산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장관은 PNG와 태평양 도서국이 참치 자원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수사법은 PNG 당국이 참치와 해양 자원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기존의 주장과 일치한다.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국가들은 자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 선단에 선박일수제도(이하, VDS)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한다. 7월에 제임스 마라페 PNG 총리는 태평양 도서국이 최대의 참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

서국들이 단지 보조금만을 받을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관은 정부가 PNG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역에서 이 부문의 상당한 잠재력으로 인하여 FCL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해양 자원이 이 지역의 “푸른 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이 잠재력을 활용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FCL의 웹사이트에는 “PNG의 상업적 어업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참치 산업, 자본 투자 이니셔티브, 연안 어업, 상업적 어업 및 해양 양식에 대한 다양한 탭이 존재한다.

PNG는 또한 해양 자원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태평양 수산위원회(FFA) 회원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인 East New Britain Initiative(ENBI)의 일부이다. ENBI는 해당 지역의 수산물을 가공하고, 지역 수산 허브를 개발하고, 기타 부가가치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참여자의 참치 어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들은 지역 어업 개발 기금을 설립하고자 한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27일



PNG, 어업에서 수십억 달러 손실

어획 어류의 대부분이 가공되지 않은 원어 형태로 해외 판매

파푸아뉴기니의 RD 참치 그룹의 리베라 회장은 국가의 정책 부재로 수산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회장은 PNG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잡은 어류의 80%가 다른 나라에서 가공되어 미국 달러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PNG의 첫 번째 어업 회사로서, 우리는 마침내 49년 만에 이 정책을 바로잡고 PNG에서 잡은 모든 생선을 PNG에서 가공하는 국내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매우 대담한 결정을 내린 정부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이는 PNG의 미국 달러화 수입을 크게 증가시켜 PNG가 겪고 있는 미국 달러화 위기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RD가 이 합작 어업 회사에 전념하고 있으며,

합작 어업 회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리베라는 태평양 해양 산업 구역(PMIZ) 개발 계획도 합작 회사가 처리할 여류가 없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PNG에서는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생선 통조림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으므로 현지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국제 시장 수요도 충족할 수 없다. 현재 우리의 사업 비중은 국내 40%, 해외 60%이다."

그는 합작법인을 통하여 자체 어선을 보유하게 되면 생선 공급량을 늘려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더 많은 생선을 가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 출처: The National, 2024년 8월 12일

미국, 2024년 상반기 아시아산 통조림 수입 확대

한국베트남산 등 수입 증가

2024년 상반기 동안 미국의 아시아산 참치 통조림 수입은 2023년 상반기 대비 증가하였다.

미국이 수입한 참치 통조림 중 아시아산은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태국산 수입량은 2023년 상반기 대비 250톤 증가한 3만 6,473톤이나, 평균 수출 가격은 가장 낮은 톤당 4,283달러였다.

베트남산 통조림은 톤당 4,779달러(전년도 상반기 대비 17% 상승)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상반기 대비 2,709톤 증가한 9,150톤의 수입량을 기록하였다.

한국산 통조림은 톤당 7,254달러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200톤 증가한 558톤의 수입량을 기록하였다. 가격을 감안하면 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날개다랑어로 추측된다.

인도네시아산 수입량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미국은 2024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 671톤 감소한 3,507톤의 인도네시아산 통조림을 수입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27일



세이셸, 2023년 황다랑어 어획 할당량 미달성

엘니뇨 현상과 기후 변화로 어획량 저조

세이셸 수산청(이하, SFA)은 작년에 조업 선박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과 2023년 황다랑어 어획 총쿼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확인하였다.

SFA의 수산 자원 관리 및 기술 조정부장은 2023년에 세이셸에 3만 7,782톤의 쿼터가 할당되었으며 전체 어획량은 3만 4,028톤을 기록하였다고 말하였다.

수산청 부장은 "선망 선단은 척당 평균 2,500톤, 총 3만 2,500톤의 대부분의 쿼터를 할당받았으며, 14척의 선망 어선 중 6척만 할당량을 모두 소진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수산청 부장은 다양한 부분이 어업에 영향을 준 한 해였으며, 해수 온도 변화에 따라 참치 떼의 위치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엘니뇨 현상과 기타 자연 현상으로 인해 참치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이동하였다.

"선망 어업은 수면 근처에 있는 참치 떼에 의존한다. 수심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얇은 대수층 존재로 참치 떼가 깊은 곳으로 잠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엘니뇨 현상과 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맞물려 더 깊은 열성층이 형성되었다. 이 효과는 세이셸이 위치한 인도양 서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결과 참치 어군이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였고 수면 어군에 의존하는 선망 어선이 참치 어군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서부 인도양에서의 어획량은 저조하였다."라고 수산청 부장은 설명하

였다.

그는 이러한 일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인에 따라 발생 강도가 달라지며 1998년, 2008년, 2016년, 2020년, 그리고 현재 2023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연도에 따라 강도는 달라진다. 1998년에는 많은 선망 어선이 인도양 동부로 이동하면서 세이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국가 수입이 감소하는 등 강도가 가장 심하였다. 그 정도는 덜하지만, 2023년에는 세이셸 EEZ의 어획량이 4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2022년은 세이셸 EEZ에서 참치 어획량이 2021년보다 170% 증가한 예외적인 해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지금까지의 조업 현황에 대해 아직 확정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2024년 1분기에는 해수 온도 상승의 영향이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점차 개선되어 2분기에 어획량이 증가했고 3분기에 더 큰 개선을 보인다. 2024년 할당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지만,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말하였다.

어업은 인도양 서부에 위치한 군도인 세이셸의 경제에 두 번째로 기여도가 많은 산업이다.

* 출처: Seychelles news agency, 2024년 8월 21일



미크로네시아, 참치 세계 시장 진출 확대 모색 개발과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맞춘 파트너십 강화 필요

미크로네시아 연방(이하, FSM)은 국제 시장에 대한 더 넓은 접근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 정책을 개혁하여 참치 산업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달 초 열린 제2차 국가 수산 정상회의에서 아렌 팔릭 부통령은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고 수산업 관련 수입을 다각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및 파푸아뉴기니, 마셜제도 등 지역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팔릭은 기초연설에서 참치 산업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FSM이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팔릭은 "2021년 참치 어업은 FSM 국내총생산(GDP)의 16.6%, 2022년에는 19.17%를 이바지했다."라며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에 대한 FSM의 노력을 거듭 강조하였다.

팔릭은 이번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인 참치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개발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푸른 번영 미크로네시아(Blue Prosperity Micronesia)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의 30% 보호, 개발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8월 5일 폰페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모인 FSM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수산 부문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FSM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개발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모였다.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연안 일자리 창출을 강화, 기술 확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해양 수산 투자 정책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 출처: Islands Business, 2024년 8월 14일

세포 배양 참다랑어, 지속 가능한 해결책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는 실험 재배 식품 꺼려

지난 5월, 세포 기반 해산물 제조업체 완다피시(Wanda Fish, Ltd.)는 최초의 세포 기반 참다랑어 회인 '토로'를 출시하였다.

참다랑어의 부드러운 뱃살로 구성된 생 토로는 지방 함량과 오메가-3 수치가 높아 특유의 버터 같은 식감을 제공한다.

완다피시의 세포배양 참다랑어 사시미는 자연산 참다랑어와 유사한 감각적 특징과 비슷한 단백질 및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참다랑어 세포의 근육량과 지방을 식물 기반 매트릭스와 결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다랑어 특유의 식감과 풍부한 풍미, 오메가-3와 같은 영양소를 잃지 않은 3D 필렛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세포 배양 참다랑어의 건강상의 이점과 지속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실험실에서 재배한 식품을 꺼리고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27일



참치는 몸에 좋을까?

장수에 초점을 맞춘 식단은 생선이 주류

모든 참치 제품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지만, 기름에 절인 참치 통조림은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신선한 참치에 비해 총칼로리가 더 높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을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 개선, 특정 암 예방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 또한 참치에는 평균적인 식단에 부족한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참치 섭취와 관련된 몇 가지 건강상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심장 건강을 개선한다.

참치에는 항염증제인 오메가-3 지방을 비롯한 심장 보호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러한 지방산은 건강한 혈관 기능을 촉진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혈중 지방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심장 건강을 증진한다.

34개의 메타 분석 검토에 따르면 생선 섭취량이 하루 100g 증가할 때마다 관상동맥 심장 질환 위험이 평균 12%, 심장마비 위험이 25%, 심부전 위험이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특정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는 건강한 식단을 따르는 사람은 특정 암에 걸릴 위험이 낮다. 예를 들어, 생선 섭취량이 하루 100g 증가할 때마다 간암 위험이 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생선을 가장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 생선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6% 감소하였다. 연구진은 수산물에 농축된 암 예방 영양소 외에도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

들이 대장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붉은 육류와 가공육을 덜 먹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3. 필수 영양소의 공급원이다.

수산물은 오메가-3 지방인 DHA와 EPA의 주요 식이 공급원이다. 우리 몸은 치아시드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 있는 알파리놀렌산(ALA)으로부터 DHA와 EPA를 만들 수 있지만 전환율이 낮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ALA에서 EPA와 DHA로의 전환율은 각각 7~21%, 0.0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DHA와 EPA를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산물과 같이 이러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식물성 DHA와 EPA 공급원인 피쉬 오일, 크릴 오일 또는 해조류 오일을 보충하는 것이다. 참치는 오메가-3 외에도 많은 사람의 식단에 부족한 비타민 B12, 철분, 비타민 D, 셀레늄과 같은 영양소도 제공한다.

4.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된다.

참치에는 가장 포만감을 주는 다량 영양소인 단백질이 풍부하다. 참치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식사와 간식에 추가하면 식사 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전체 열량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단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단백 식단은 체중 감량 중에도 근육량을 보존하여 건강한 휴식 대사율이나 휴식 중 신체가 소



모하는 열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장수에 도움이 된다.

수산물이 풍부한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산물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뿐만 아니라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하면 기대 수명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선 섭취는 심장 질환 관

련 사망을 포함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선 섭취량이 하루 100g 증가할 때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에 초점을 맞춘 많은 블루존 식단에서 생선이 주류를 이루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 출처: Mindbodygreen.com, 2024년 8월 28일

중동 참치 시장,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세 보여

상온보관 참치 등 시장 성장세

참치는 지난 몇 년 동안 중동 국가로 수입된 어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가공 및 상온보관용 참치는 2021년 중동 지역 수산물 수입의 14%를 차지하면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에 중동 지역은 EU에서 대량의 가다랑어를 구매하였다.

이는 최근 유럽 수산 및 양식 제품 시장 관측소(이하, Eumofa)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근거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해당 지역의 참치 어업 생산과 세계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U는 중동과 다자간 및 양자간 협정을 다수 체결하였다. 걸프협력위원회(GCC)와 같은 지역 무역 기구와 경제 파트너십은 중동 국가 간의 참치 무역과 경제 협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3년에 EU는 12만 8,907톤의 참치와 기타 수산물 제품(양식 포함)을 3억 8,851만 유로의 가치로 수출하였다. 2022년에 비해 수산물 전체 수입량 및 수입액이 감소하였으나, 참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Eumofa에 따르면 EU는 작년에 중동에 1만 7,836톤의 가다랑어를 수출하였다. 이는 수입량

기준으로 77%, 수입액 기준으로 65% 증가한 수치이다. 터키는 총수출량의 7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다. 최근 발표된 FAO의 세계 어업 및 양식 현황(SOFIA) 2024 보고서는 중동이 상온 보관용 참치 제품의 성장하는 시장임을 강조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한 중동 수산물 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2021년에 중동의 참치 및 기타 수산물 수입량은 110만 톤, 수입액 29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주요 판매국은 노르웨이, 태국, 모로코였다. Eumofa는 각 종의 개별 톤수나 가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참치가 총 수입량의 14%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2020년과 비교하여 전체 수산물 수입량은 17%, 수입액은 0.4% 감소하였다.

가다랑어는 2021년 전체 수입량의 3%를 차지하였다. 가다랑어는 새우 및 왕새우와 함께 수입액 기준으로 최상위 3개 종에 속하였고, 해당 연도 전체 수입액의 35%를 차지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19일



포클랜드, 2024년 로리고오징어 어기 취소

오징어 자원 급감 원인

포클랜드제도수산청(이하, FIFD)은 2024년 두 번째 로리고오징어 어기를 취소한다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FIFD는 성명에서, 지역 어업 회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한 두 차례의 어기 전 생물자원량 조사 결과 오징어 개체 수가 심각하게 낮다는 결과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4년 7월에 실시된 첫 번째 조사 결과,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두 번째 어기 전 생물자원량 추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안전한 자원 보존에 필요한 임계값으로 간주되는 1만 톤 아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FIFD는 업계와 협의한 후 어기를 연기하고 8월 초에 후속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14일에 완료된 2차 조사 결과, 평균 생물량은 2008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추정치였으며, 확립된 안전 임계값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FIFD는 이에 대한 보존 조치로 어기를 완전히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FIFD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포클랜드제도 경제에 필수적인 자원인 로리고 오징어 개체군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유례가 없는 조치인 이번 결정은 포클랜드 어업 산업에 심각한 여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클랜드제도어업회사협회 의장이자 로리고생산자그룹 대변인인 Cheryl Roberts는 “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2023년 2번째 시즌이 조기에 마감된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높은 연료 비용,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수준인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 등으로 인하여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로리고오징어 선단의 약 20%가 상당한 자본 비용을 감수하며 쇠신된 시기에 어기가 취소되는 것은 부담을 가중한다.”라고 말하였다.

Roberts 의장은 “선박이 어기를 앞두고 출어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조업이 취소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 어기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이러한 요인이 축적되면서 올해는 이 부문의 수익성과 세금 납부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어기 취소는 업계가 선박 현대화에 상당한 투자를 한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졌다.

스페인 미디어 파로데비고(Paro de Vigo)에 따르면, 선박 신조 및 개조에 2억 6,50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다. 이는 업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어기 취소는 이러한 투자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스페인 갈리시아에 있는 회사들은 상당한 재정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 포클랜드 수역에서 운항하는 16척의 선단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스페인 갈리시아 주 비고(Vigo)와 마린(Marin)의 회사들은 이제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들은 선박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음에도 어획량 감소와 재정적 타격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오징어 어획량 부족은 이들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번 어기 취소로 오징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인상은 공급망 전체에 파급되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선단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기업들은 공해에서 다른 어종을 조업할 기회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민대구류(hake)와 같은 종은 더 유망한 어획률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어업으로 전환한다면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러나 공해에서의 어

업은 공유 시장, 특히 아르헨티나와의 경쟁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어기 취소 발표 이전부터, 업계는 이미 조선, 연료 및 어업 허가를 포함한 운영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재의 위기는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켜 업계를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올해 초 당국은 입어료를 22% 인상하여 총비용을 약 1,800만 달러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인상은 자원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8월 22일

과학자, 포클랜드 2025년 로리고 어업 금지 검토 권고

자원량 감소 원인

과학자들이 로리고 오징어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시하면서, 포클랜드제도 어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대서양 미디어 MercoPress에 따르면, 2024년 2차 로리고 오징어 어기가 생물자원량의 심각한 감소로 인하여 갑자기 중단된 후, 전문가들은 오징어 자원 감소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포클랜드 제도의 수석 어류학자로 근무했던 두 족류 전문가 알렉산더 아르키프킨(Alexander Arkhipkin)과 다른 전문가들은 포클랜드제도가 2025년에 로리고 오징어 어류 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로리고 오징어 어업의 전면 금지를 포함한 더욱 과감한 조치를 고려하라고 자문하였다.

아르키프킨은 상황이 좋다면 자원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만, 현재 자원의 급감을 감안하면 2025년 어기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하였다.

포클랜드제도 정부의 지난 8월 16일 어기 중단

발표로 인하여 스페인 갈리시아, 포클랜드제도, 남대서양 어업계가 모두 타격을 받았다.

제임스 윌슨(James Wilson) 포클랜드 천연자원 부국장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포클랜드 어업부는 진행 중인 환경 요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역추적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진행 방법에 대한 결정은 추가 과학적 자문에 달려 있다.

앤디 킬링(Andy Keeling) 포클랜드 총리는 현행 시스템이 어기 취소를 자동으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업계는 입법부에 구제를 청원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전에는 쿼터가 일찍 소진되면 로리고 오징어 어기가 조기에 종료된 적이 있었으나, 어기가 완전히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8월 29일



日 연구자 “오징어 소비 감소, 배경은 원료 부족”

일본 국내 가격 및 생산, 수입 추세 등 분석

일본 전국오징어가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8월 2일 도쿄에서 2024년도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일본수산대학교 수산유통경영학과 유통경영강좌의 카즈유키 토네 조교가 “오징어 가공 원료의 유통 실태 파악과 시장 조사”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카즈유키 조교는 데이터를 이용해 오징어의 소비 감소율이 다른 수산물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배경에는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징어에는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는 가운데, 국내의 가공 원료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카즈유키 조교는 국내 오징어 공급량의 추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6년 이후 일본 국내 살오징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 품은 가공도가 높은 반제품·제품 수입량이 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카즈유키 조교는 2013~2022년 일본 소매시장 변화도 설명하였다. 오징어 가공 제품의 판매 금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는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진미·과자·건조를 제외한 오징어의 판매 금액은 살오징어 생산량의 감소에 비례하는 형태로 감소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징어 판매 금액 감소를 다른 수산물과 비교하기 위해 일본 총무성 가계 조사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오징어 소비 감소율과 가격 상승률은 다른 수산물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줄어든 배경으로는 “수요 부족보다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량 부족에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일본 국내 재고량의 경우, 제품 재고(소비재 재고량)는 안정적인 반면 원어 재고(산지 재고량)는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카즈유키 조교는 오징어 가공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 가공 원료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8월 9일





페루 살오징어 어획량, 전년 대비 약 80% 감소

일렉스 오징어 약 15만 톤

남미 국가의 아메리카 대왕오징어(홍볼트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였다. 페루의 1~5월 어획량 누계는 전년도 동기 대비 81%나 감소한 7만 5,891톤을 기록하였다. 전년도 1~6월 어획량이 많은 편이었음을 감안해도, 올해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칠레에서의 어업도 악천후로 인하여 출어가 제한적이었다. 무역회사 소식통은 “페루의 부족분을 보충하고자 칠레산 매입이 강해지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아르헨티나가 자국 EEZ 내에서 1~6월간 어획하는 일렉스 오징어의 어획량은 15만 3,215톤으로 조업이 종료되었다. 1~8월간 조업하였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어획량으로 마무리되었다.

중국 선단이 적도상에서 조업하는 소형 빨강오징어(무라사키 오징어, 적도오징어)의 어획량은 좋지 못하였다. 7월 하순 중국 국내 원어 가격은, 1미 500g 이하 1만 8,000~1만 8,500위안, 500g~1kg이 1만 6,000~1만 6,500위안, 1~2kg이 1만 2,500~1만 3,200위안, 2~4kg이 1만 2,000~1만 2,800위안의 높은 수준을 이어나갔다. 중국 선단은 현재 페루 연근해 공해에서 오징어를 어획하고 있으나, 어획량은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1~6월 일본의 냉동 살오징어류(일렉스오징어, 홍볼트오징어류 등 포함)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3만 6,682톤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8월 9일자

중국 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 심각

페루 어민, 정부 대상 총파업 준비 및 무력 대응 요청

중국 어선들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드나들며 불법조업을 강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수역의 오징어 조업이 중단되면서 페루로 이동한 중국어선들은 350여 척에 달한다.

각국의 관계기관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관련 법안 제정과 방어에 협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아프리카 가나에 이어 중국어선에 의한 피해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국가이다.

이미 7월 중순에 페루에 상륙한 700여 척의 중국 불법조업선은 대왕오징어를 포함한 두족류 남획이 하루 900여 톤으로 파악되고 하루 5~6톤을 잡는 페루 조업선에 비하여 상당한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페루 어업관계자는 정부를 대상으로 총파업을 준비 중이며 중국 선박에 대한 무력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 출처: 아르헨티나 명예수산물, 2024년 8월 13일



러, 2024년 9월 초까지 350만 톤 어획

예상치보다 저조하나 지난해 수준 어획량 유지

러시아 FMC에 따르면 2024년 9월 3일까지 러시아 전체 사용자의 수생 생물자원 어획량은 350만 톤에 달하였다.

- 극동 수역: 260만 톤 이상

명태 150만 톤 이상, 태평양 연어 20만 9,400톤, 대구 8만 8,200톤, 청어 약 31만 8천톤, 가자미 5만 2,500톤, 정어리 18만 700톤.

- 북부 수역: 34만 8,500톤(지난해 대비 1.9% 증가)

대구 18만 5,700톤, 해덕 4만 2,600톤, 열빙어 51.7천 톤(2023년 수준 대비 2만 8,6천 톤 증가).

- 서부 수역: 5만 4,500톤

유럽청어 3만 400톤; 발트해 청어 1만 8,400톤.

- 아조프-흑해 수역: 2만 3천 톤

멸치 9,200톤(지난해 대비 700톤 증가)

- 볼가-카스피 수역: 4만 9,800톤

카스피해청어 2만 500톤

- 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협약 수역 및 공해에서 러시아 조업선은 34만 5,400톤 이상을 어획하였다.

* 출처: 러시아연방수산청, 2024년 9월 4일

2024년 상반기 러 어류 및 수산물 수출입 현황

수출액 및 수입액 각각 4%, 19% 감소

2024년 상반기 러시아의 어류 및 수산물 수출량은 97만 4천 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유럽 어업 및 양식 모니터링 서비스(EUMOF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류 연합 분석 센터에서 계산한 수치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출액은 4% 감소한 23억 달러이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러시아 생선 및 수산

물 수출업체가 지급한 탄력적 수출 관세의 대략적인 금액은 110억 루블을 초과하였다.

2024년 상반기 러시아의 생선 및 수산물 수입량은 20만 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하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 8,500만 달러로 19% 감소하였다.

* 출처: Fishnet, 2024년 9월 6일



美 연육 사업, 내년 호전 전망

아메리칸시푸드 매각 및 명태·연육 관련 정세 설명

미국 수산 기업 아메리칸시푸드그룹(이하, ASG)의 에이나르 구스타프슨 CEO는 미국 알래스카 명태 산업의 경쟁 상대인 러시아산의 무역장벽을 강화할 필요성을 호소하는 한편, ASG의 사업 환경이 2025년 이후 연육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드러냈다.

"우리는 여전히 이익을 얻고 있으며 유동성도 있다"라고 구스타프슨 CEO는 말했다. 이들은 연육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필렛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ASG의 매각을 정식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스타프슨 CEO는 "당사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는 현금흐름 머신이다. 판매량을 생각하면 강력한 회복에 그다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시장의 사이클은 회복하고 가변성도 좋아질 것이다. 매각을 계속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캘리포니아 LA에 위치한 사모펀드 기업 비치포인트사는 ASG의 매수 유력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다. ASG의 모기업인 사모펀드 기업 브레같은 ASG의 매각을 고려할 당시에 15억 달러 이상의 오퍼를 거절한 바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의 명태 관련 정세를 감안하면, 비치포인트사가 제안한 액수는 10억 달러 전후인 것으로 추측된다.

구스타프슨 CEO는 또한 "어업회사의 경우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려면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고, 나는 천연 명태의 장기적 가치를 믿으나, 명태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구스타프슨 CEO는 미국과 유럽의 연육 수요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시아에서 러시아와의 경쟁은 치열하다고 말하였다. 구스타프슨 CEO는 러시아 대기업 RFC가 "어떤 가격대에서도 경쟁에 이길 것"이라고 공언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에게 있어 최선은 생산을 줄이고 무역 장벽을 쌓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ASG는 워싱턴을 거점으로 하는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구스타프슨 CEO가 거론한 '정치적 장벽'에 주력하고 있다.

구스타프슨 CEO는 최근 덴 설리번, 리사 매코스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과 함께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는 한편 러시아의 MSG 인증 제외를 요구하는 등의 행보로 인하여 러시아 명태어업자협회 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구스타프슨 CEO는 또한 최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후 성명에 러시아산 수산물 반대 문구가 담긴 것에 환영을 표명하였다.

일본, EU 가맹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모두 G7 회원국이며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은 현재 러시아산 흰살생선의 직접 수입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러시아산 H&G(머리, 내장 제거) 생선 및 더블프로즌(선상 냉동 후 해동하여 가공한 다음 재냉동한 제품) 필렛이 가공 목적으로 무관세 수입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ASG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러시아가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시장에 팔기를 멈출 수 없는 탓에 연육에 대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연육 문제는 앞으로 더욱 격화된다. RFC의 예측에 따르면 러시아산 명태는 2024년 해상과 육상에서 8만 1,000톤 생산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12만 4,000톤이 된다. RFC는 2028년에는 16만 3,000톤의 연육 생산되며, 이는 미국의 통상적인 생산량에 근접한다고 예측하였다.

2023년 미국의 연육 생산량은 19만 5,107톤이었다. 7월 13일까지의 B시즌 생산량을 보면, 베레해산은 2만 7,669톤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다. A시즌산을 포함한 누계에서는 10만 1,907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다.

언더커런트뉴스(이하, UCN)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일본에서 명태 도매가의 경우, 엔화 기준으로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달러로 표기할 경우 아직 하락한 상태이다. 달러로 거래되는 유럽 필렛

과 달리, 미국은 일본에 연육 형태로 판매한다.

UCN의 데이터에서 2024년 5월까지 최신 미국산 연육 수출 월평균 단가는 톤당 2,27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하였다. 러시아의 일본 연육 수출량은 소량이나, 5월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2,159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하였다.

수산 양식 제품의 유럽 시장 감시 기관 EUMOFA의 데이터에서도, 24년 상반기의 미국산 연육의 유럽행 수출은, 수량·금액 모두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EUMOFA의 데이터에 의하면, 2024년 제27주차 EU의 평균 연육 수입 가격은 톤당 2,200유로로, 미화 기준 2,400달러이다. 2023년 제7주차 EU 평균 수입 가격은 4,980유로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8월 13일

노레보, 캄차카 조선 인력 양성 프로젝트 참여

청년 전문가 양성, 중등학교에서 시작 필요

조선 산업에 청년 유입을 보장하기 위해 캄차카 지역에 특별 수업이 조직되었다. 올해는 노레보 어업 회사의 자회사인 Rem-Nova DV가 선박 수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조선 공학 수업은 캄차카 중등 3번 학교에서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을 고급 수준에서 공부하고 엔지니어링 및 기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프로젝트 실행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으며 업계와 실습 등의 형식도 포함한다.

“조선 분야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이 현대화되고 첨단선

박이 건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문가를 양성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이 산업에 진출하려는 욕구를 가지기 위해서는 중등학교에서부터 의욕 부여 교육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것이 멘토링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이유이다.”라고 Rem-Nova DV의 사장은 말하였다.

노레보 어업회사는 2021년에 캄차카에서 선박 수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Rem-Nova DV를 조직하고 이 지역에 두 개의 생산 공장을 인수하였다. 이 회사는 또한 어선의 부두 및 선박 외부 수리를 수행한다.

* 출처: Fishnews, 2024년 8월 16일



러 상원, 어업협정의 자국 이익 촉진 권고

러 수산청장, 어업협력의 복잡성과 유익성 강조

러시아 상원은 러시아 농업부와 수산청에 어업 분야의 모든 정부 간 협정의 러시아에 대한 이익 유무 분석을 촉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이것은 러시아 상원 농업·식량정책·환경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관계당국이 외무부에 제안을 송부하였고, 외무성은 조사 결과에 근거, 국익에 반하여 비우호국 등에 일방적인 특권을 주는 조약의 파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원 의장 발렌티나 마트비옌코는 이 작업의 지연을 지적하고 '냉정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러시아 상원은 2024년 3월 6일 영국과의 어업협정 파기를 채택하였다.

또한 2022년 3월에 영국이 무역에서의 최혜국 대우를 정지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바렌츠해에서의 영국 어업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21일 러시아 하원을 통과하였다.

소련 정부와 영연방 정부는 1956년 5월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5년을 기간으로 체결되어 영구 연장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 당사자가 파기할 때까지 협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다.

영국은 콜라 반도의 연안, 카닌노스 곶의 동쪽 본토를 따라 콜구예프 섬 해안의 바렌츠 해 수역에서 어업에 중사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영국 어선이 소련 수역에서 조업한 것은 1980년대 말까지였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법적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협정은 계속 유효하였다.

상원에서는 영국 어선이 2000년 이후 러시아 수

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않고 해당 협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잃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 러시아 어선도 영국 해역에서의 조업이 없는 가운데 해당 협정이 일방적인 것으로 러시아 어선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권한이나 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이 채택에 있어서 협정 파기 결정의 정확성을 강조하고, 어업 분야의 모든 정부간 협정에 대하여 국익 유무의 분석을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세스타코프 러시아 수산청장은 마트비옌코 의장의 어업 부문 협정에 대한 국익 유무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업 협정의 장단점 문제는 복잡하고 균형 잡힌 접근법과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각국이 러시아 EEZ에 입역하여 단순히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맺고 동시에 러시아 어업자가 상대국 EEZ에 입역하는 것과, 금전 보상과 교환하여 어업권을 러시아가 제공하는 협정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검토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스타코프 수산청장은 외교정책의 상황이 어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도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비우호국과 어업 협력 및 양국 간 어업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에 있어서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출처: 홋카이도 기선련, 2024년 8월 21일



러, 베링해-북극 동부 수역 통합 연구 우선순위 결정

해양 생물 자원 합리적 이용, 어업 및 과학기관과의 협력에 좌우

8월 26일에 VNIRO(전러시아수산 및 해양과학 연구소) 태평양지부 학술위원회 생물학 분과 회의가 열렸다. 주요 주제 중 하나는 베링해와 북극 인접 수역 종합 연구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이다.

베링해 서부와 인접한 캄차카 대륙붕의 생물 자원에 대한 조사와 상업적 어종의 개체군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연구는 자원 상태와 수중생물 자원의 역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 TINRO(VNIRO 태평양지부)는 러시아연방정부명령 제2115-r호에 의해 할당된 추가 자금을 고려하여 2024년 이 지역에서 통합 자원 연구의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탐사는 명태, 넙치, 고등어, 농어, 장어, 새우, 게, 오징어 및 기타 해양 생물 자원을 포함한 주

요 상업 어종의 자원, 분포 및 서식지 특성을 평가하고 향후 총허용 어획량과 권장 어획량을 예측하기 위해 다년간의 통합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우선순위 어업 연구의 하나로 TINRO 과학자들은 이미 R/V 드미트리 페스코프와 R/V TINRO 조사선을 통하여 종합적인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여름철 베링해 북서부 수역의 해양 생물 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서베링해 수역은 극동 어민의 연중 주요 조업 지역 중 하나이다. 서베링해 수역의 자원량은 100만 톤을 초과하지만, 그 수준은 불안정하다. 장기적으로 수생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어업 기관과 산업 과학 간의 긴밀한 공조에 달려 있다.

* 출처: VNIRO, 2024년 8월 29일

러 FMC, 자국 VMS 도입 추진

외국 기술 의존 탈피 및 자국 기술 증대

9월 1일 선박기술제어수단(VMS)을 장착하기 위한 새 규칙(2024년 5월 13일 농업부 명령 250호)이 발효되어 어선의 기술 제어 장비 도입 기간이 설정되었다. 이 문서는 선박 위치 전송을 위한 러시아 위성 솔루션으로의 전환을 규제한다.

특히 이러한 목적으로 Gonets 스테이션,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AIS) 장비와 선주의 희망에 따라 Yamal 위성 또는 Express 러시아 위성을 통하여 선박 위치를 전송하는 위성 라우터가 있는 VSAT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이다.

연안 또는 산업 어업에 종사하는 55kW 이상의 용량과 80톤 이상의 총톤수를 가진 선박은 기술적 제어 수단을 갖춘 장비의 의무 적용을 받는다.

현재 631척의 선박에 Gonets 스테이션이 설치되었고, 405척에 추가 설치 예정이다. 이 세트는 업계의 요구를 충족한다고 러 FMC는 말하였다.

전환 기간이 끝나면 러시아 자국 솔루션만 선박 위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전환 기간은 2026년 1월 1일까지이다.

* 출처: Fishnews, 2024년 9월 3일



러, 아프리카 조사단 출범

일부 양자 어업 협정 파기 검토

러시아 의원들이 소위 “비우호적” 국가와의 양자 어업 협정 종료를 다시 제안한 가운데 아프리카 연안의 수산 자원 분석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 연구 탐험대가 서부 칼리닌그라드에서 8월 21일 출발하였다.

이 연구 임무는 아프리카의 생물 자원 평가와 러시아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연방수산청장은 “이 특별한 탐사는 현재 러시아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국제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2026년까지 지속될 이 탐험은 동쪽으로는 에리트레아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서쪽으로는 앙골라에서 모로코까지 19개국의 연안을 탐사할 예정이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몇 간 아프리카 국가와의 어업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6월 6일, 러시아 당국은 양자 간 협정에 따라 모로코 해역에서 러시아 국내 기업이 어획할 수 있는 쿼터를 승인하였다.

2024년에 러시아 선박은 모로코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정어리, 밴댕이, 고등어, 전갱이, 멸치 어종을 5만 톤 어획할 수 있다. 10년 전 모로코 수역에서 러시아의 어획 쿼터는 10만 톤에 달하였으나, 3년 전에는 8만 톤에 불과하였다.

한편 러시아 의원들은 이른바 '비우호적' 국가와의 양자 어업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하였다. 상원은 연방수산청과 농업부에 러시아의 국제 어업 협정에 대한 감사를 권고하였다.

전러시아어업협회(이하, VARPE)에 따르면 감사의 목적은 러시아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 '비우호적'

국가에 일방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협정을 무효로 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는 약 70개의 국제 어업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전체 어획량의 거의 4분의 1을 확보하고 있다고 VARPE는 말하였다. 따라서 VARPE의 협회장은 새로운 수산 외교를 시행하는데 있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

2024년 3월, 러시아 당국은 1956년 5월 25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영국과의 협정을 중단하였다. 이 협정은 영국어선이 러시아 콜라반도 연안에서 대구와 해덕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연방수산청에 따르면 이 협정은 주로 일방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러시아에는 유사한 혜택이 없었다.

2024년 1월, 사할린 지역의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의원들은 일본과의 어업 협정이 러시아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일방적인 협정으로 종료를 제안하였다.

1998년 2월 21일에 체결된 이 협정에 따라 일본 선박은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섬 근처에서 조업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아직 이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8월 초 러시아 당국은 북대서양 어획 할당량 설정에 대해 조언하는 중요한 수산 자원 규제 기구를 탈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러시아는 1964년 국제 해양 탐사 위원회에서 탈퇴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관리들은 지금까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를 포함한 국제 어업기구의 탈퇴를 약속하지 않았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8월 27일



中 최대 연육 제조업체, 사상 최고 이익 기록 전년도 대비 순이익 11% 증가

중국 최대 연육 제조업체인 Anjoy Foods社가 광범위한 경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2024년 상반기 동안 역대 최대 매출 및 수익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푸젠성 남부 샤먼시에 본사를 둔 해당 기업은 2024년 상반기 75억 4,000만 위안(10억 6,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대비 9.42% 증가한 수치이다. 순이익은 1.1% 증가한 7억 7,200만 위안으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이다.

Anjoy는 중국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하였다.

Anjoy는 연중 보고서에서 "중국에서는 신중한 성장 예상과 '저축이 왕'이라는 감정이 만연하여, 소비자 잠재력이 활용되지 않고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Anjoy Foods는 중국에서 연육과 기타 수산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다. RT-Mart, Yonghuui, Walmart, Wumart 및 Tianhong과 같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주요 슈퍼마켓 체인을 통해 유통을 확대하고 있다.

Anjoy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또한 영국에 본사를 둔 Oriental Food Express(Kung Fu Food)社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4년 상반기에 6,770만 위안(현재 환율로 724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8월 23일

러시아 명태, 게, 쥐노래미, 총허용어획량 조정 2024년 사할린 하부 수역 명태 쿼터 43% 증가

러시아연방농업부는 2024년 총허용 어획량을 변경하였다.

TAC 변경은 2024년 8월 16일부터 농업부 명령 № 475에 의해 이루어졌다.

올해 쥐노래미의 TAC는 카라긴스카야 하부 수역에서 1,060톤에서 4,760톤으로, 페트로 파블로프스크-코만도르스카야 하부 구역에서 5,400톤에서 1만 1,700톤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북쿠릴에서 이 자원의 쿼터를 1만 4,400톤에서 2만 5,600톤으로, 남 쿠릴 지역에서는 3,900톤에서 6,900톤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서 캄차카 하부 수역의 왕게 TAC는 1만 3,584천 톤에서 1만 4,437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캄차카-쿠릴스키 구역에서는 1,429톤에서 576톤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하부 수역 간에 재분배가 있었다. 서 캄차카 하부 수역의 청색왕게 허용 어획량은 2,449톤에서 2,841톤으로 증가하였다.

서사할린 하부 수역의 명태의 경우 TAC를 2만 4,500톤에서 3만 5,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러연방수산청은 이미 쿼터 유형과 사용자별 물량 배정을 정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4년 8월 23일



생선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나

제품별 물류 및 포장, 이윤이 다르나 어민 가격은 1/3수준

진열대에 있는 명태 필렛의 비용 구조에서 ‘어민의 가격(어획제품 생산비용)’은 전체의 37%만 차지한다. 어업 연합은 특정 종류의 생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려주었다.

명태 필렛을 예로 들어 보자. 2024년 6월의 평균 가격은 kg당 550루블이었다.

이 비용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가격의 37% 또는 205루블: 어민의 가격;
- 4% 또는 23루블: 모스크바로 생선 배송료;
- 7% 또는 40루블: 포장비;
- 2% 또는 10루블: 소매 체인 유통 센터 배송료;
- 12% 또는 68루블: 공급하는 유통업체 수익;
- 37% 또는 204루블: 소매 체인의 이윤

생선의 종류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오징어 한 마리의 가격에서 물류비는 7%,

포장비는 9%를 차지한다. 유통업체의 이윤은 19%로 더 높고, 소매업체의 이윤은 33%로 더 낮다. 6월 신선 냉동 오징어 평균 가격은 kg당 444루블이었다.

가장 낮은 이윤은 신선 냉동 청어의 소매 체인과 유통 업체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러한 유형의 생선은 kg당 181루블의 가격으로 진열대에 표시된다. 소매 체인의 이 물고기에 대한 이윤은 10%에 불과하다. 유통 업체는 더 적어 4%에 불과하다. 이는 포장 및 배송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물류는 생선 비용의 19%, 포장은 22%를 차지한다.

신선 냉동 명태의 경우 비용 구조에서 소매 체인 및 유통 업체의 이윤은 청어에 비해 높지만(각각 13%와 8%) 필렛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용의 1/3에 도달하지 않는다.

* 출처: Fishportal.ru, 2024년 8월 21일

러, 극동 최초의 저연승어선 건조 추진

고효율 현대식 선박으로 대구 조업

9월 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투자 쿼터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의 틀 안에서 시그마 마린 테크놀로지사를 위해 보스토치나야 베르프 조선소가 첫 번째 저연승어선을 건조 예정이다.

이전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업체들은 계 조업선만 건조하였으나, 이제는 연승 어선을 건조하게 되었다. 시그마 마린 테크놀로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선박은 해양 생태계를 가장 보호하

는 어업인 연승 어업을 통하여 태평양 대구와 넙치를 조업할 예정이다.

시그마 마린 테크놀로지는 최근 4척의 계잡이 조업선을 차례로 건조하였다. 이들은 트롤어선 5척, 연승어선 7척, 계잡이 어선 13척 등 25척의 고효율 현대식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조업은 오호츠크해와 베링해에서 이루어진다.

* 출처: Fishnet, 2024년 8월 28일



日 콩치붕수망 어업, 16~17일 약 640톤 양륙

전년 첫 양륙 대비 어체 크기 다소 큰 편

지난 8월 10일 조업이 시작된 일본 콩치붕수망 어업의 첫 양륙이 8월 16일과 17일에 걸쳐 홋카이도 네무로시 하나사키 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틀간 양륙된 양은 약 640톤이다. 어획량 부족이 계속되는 최근 수년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준의 첫 양륙이다. 17일 삿포로 시장에 처음 입하된 양은 21톤으로, 최근 수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물량이다.

16일에는 하나사키에 대형선 4척이 67톤, 17일에는 하나사키, 앓케시에 대형선 36척이 570톤을 양륙하였다.

어체 크기는 지난해 첫 양륙에 비해 다소 컸다. 지난해 첫 양륙 당시에는 1미당 100g 이상의 개체가 적었으나, 올해는 100g을 넘는 개체가 두드러졌다.

일본 장관 허가 붕수망 어업은 작년까지 소형선(10톤 이상 20톤 미만)이 8월 10일, 중형선(20톤 이상 100톤 미만)이 15일, 대형선(100톤 이상)이 20일에 해금되는 식으로 매년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 선박 크기와 관계없이 10일에 해금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공해 조업에 한함).

올해 첫 양륙은 지난해부터 이틀 앞당겨졌다. 거리가 먼 공해 어장까지 항행할 수 있는 대형선이 어기 초반부터 투입되면서, 첫 어업에서 공급량이 단번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산지 가격은 전년도 첫 양륙 당시와 비교해 크게 하락하였다. 16일 하나사키의 어가는 kg당 562~724엔이었다. 전년도는 중간 가격 기준으로 kg당 3,000~6,000엔으로, 중간 가격 기준으로 비교해도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음 양륙은 1주일에서 10일 이후로 예상된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이번 어기의 자원량 자체는 저조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삿포로 어시장에는 지난 8월 17일 약 21톤의 콩치가 입하되었다. 이는 2023년 8월 21일 첫 입하 물량(300kg)의 70배 수준이다. 8월 19일도 17일 양륙 분량의 일부인 약 35톤을 취급하면서 연일 많은 물량을 기록하였다.

최근 수년간 보기 힘들었던 이례적인 물량이 된 원인으로는 올해부터 이전과 달리 콩치 붕수망 대형선이 중소형선과 같은 날에 첫 출어하게 된 것과, 8월 중순 태풍으로 인하여 혼슈(일본을 구성하는 4개의 본섬 중 가장 큰 섬)로의 출하가 멈춘 것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첫 양륙된 어획물을 '축의(ご祝儀)'라는 고가에 매입하는 관행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경매에 부쳐진 콩치는 1kg판 7미 2상자(1미당 140g 전후)가 kg당 약 40만 엔에 거래되었다. 이는 전년도 최고치 대비 약 2배나 오른 가격이다.

2kg판 경매 가격은 14미 1만 5,000~2만 엔, 15미 2,500~9,000엔, 16~17미 1,000~3,800엔 가량을 기록하였다.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대매매(경매가 아니라 정해진 가격으로 하는 거래) 가격의 경우, 38~40미(4kg판)를 중심으로 kg당 650~900엔이었고, 19일에는 kg당 700~750엔으로 하락하였다.

콩치는 어획량 부족으로 최근 수년간 8월 15일 연휴의 판매 경쟁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초반부터 소비자가 취급하기 쉬운 가격대를 기록하면서 소매 판매점이 혜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미나토신문,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8월 20일



日 도요스, 첫 쫄면 경매가 역대 최고치 기록

kg당 50만 엔...어기 전반적 어획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돼

토요일까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네무로의 하나사키 항과 다른 항구에 상륙한 다음 날 도쿄 도요스 어시장에 도착한 첫 쫄면 물량은 약 42톤이다. 전년도 첫 양륙 물량은 2023년 8월 21일 양륙된 약 500kg으로, 올해는 그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일본에서는 첫 양륙된 어획물을 ‘축의(ご祝儀)’라는 고가에 매입하는 관행이 있는데, 도요스 시장에서의 쫄면 첫 경매가는 kg당 50만 엔을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보다 2.5배나 오른 가격이자 역대 최고치이다.

대량으로 거래된 탓에 작년 대비 전체 도매가격은 하락하였지만, 무게가 140g 가량인 개체는 7만엔

이상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최고가에 쫄면을 매입한 무역업체 야마하루(Yamaharu)의 야마자키 야스히로 대표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어업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라는 뜻을 밝혔다. 야마하루 측은 매입된 쫄면이 미국 초밥 레스토랑 위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첫 양륙이 많은 양을 기록하였으나, 한 연구소는 어기 동안 쫄면 어획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도요스 시장 소식통은 쫄면 어업의 전성기에 비하면 어체가 작은 편이지만, 어획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 출처: nippon.com, 2024년 8월 20일자

러,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로드맵 개발

소비자 선호도 연구 및 주제별 행사 제공

러시아연방수산청장은 러시아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로드맵” 설정을 위하여 산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3년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 생선 및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는 2030년까지 러시아산 수산물의 자국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실행 계획(로드맵)의 개발 및 시행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이 문서에는 마케팅 연구 및 과학적 작업, 관련 제도 준비, 운송,

제품 보관 및 무역 조직화, 러시아 생선 소비의 대중화 등 광범위한 조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율적 비영리 단체(ANO) “러시아 수산물 진흥청”이 7월에 설립되어 소비자 선호도 연구, 사회 지향적 정보 캠페인 실시, 주제별 행사 개최, 지역 및 시장 참여자에게 방법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로드맵의 첫 번째 활동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8월 15일



국제 컨테이너 운임, 여전히 매우 높아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 예상

국제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이 8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막대한 운임을 지급한 참치 산업에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운임이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이하, SCFI)는 중국에서 함부르크, 로테르담, 앤트워프, 르아브르로 향하는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7월 5일의 해당 지수는 올해 최고 수준인 20피트 컨테이너 1대당 3,733.80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하락세이다. 8월 9일 기준으로 SCFI 지수는 컨테이너 1대당 3,253.89달러로, 최고점인 7월 5일 대비 13% 하락하였다.

5월 초 이후로 컨테이너 운임은 태평양 및 아시아-유럽 항로가 평소보다 일찍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상승세를 탔다. 아시아의 악천후 및 홍해 사태로 인한 우회 항로 이용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지연이 발생하고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였다.

영국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인 컨테이너무역통계(이하, CTS)의 데이터에 따르면, 홍해 사태로 인한 아프리카 우회로를 감안할 경우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국제 수요는 25% 증가하였다. 운송 시장 수요는 5~9월 사이가 성수기이며, 특히 7월이 최고점이다. 9월에 운임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수기 이후인 10월에는 더욱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다고 국제 해상

운송 컨설팅 업체 Vespucci Maritime의 라스 엔센(Lars Jensen) CEO가 말하였다.

6월 중국발-북유럽행 컨테이너 수는 약 80만 대로, 해당 부문의 월간 수치 중 역대 최대치이다.

영국 해운 전문 컨설팅 업체 드루리(Drewry)의 국제컨테이너지수(이하, WCI)는 40피트 컨테이너(이하, FEU) 운임도 하락세임을 보여준다. 8월 8일 WCI 지수는 FEU 1대당 5,551달러로, 7월 말 대비 3% 하락하였다. 이는 팬데믹 기간 최고치인 2021년 9월의 1만 377달러보다 여전히 47% 낮지만 2019년(팬데믹 이전) 평균 운임인 1,420달러보다 291%나 높은 수준이다.

WCI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운임이 7월 말부터 4% 하락하여 6,501달러를 기록하였다. 마찬가지로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의 운임과 상하이에서 뉴욕까지의 운임은 각각 40피트 컨테이너당 7,929달러와 8,931달러로 3% 하락하였다. Drewry는 운임이 정점에 도달하였으나, 지속적인 운송 중단으로 인하여 한동안 이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DHL은 최신 보고서에서 컨테이너 운임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컨테이너의 지속적인 부족, 강한 수요, 항구 혼잡 등으로 인하여 향후 수개월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DHL은 홍해 사태가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항로뿐만



아니라 대체 항로 및 환적 허브에서도 혼란을 유발한다고 강조하였다.

DHL은 소형 선박이 장거리 항로에도 이용되면서 근거리 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게다가 아시아-EU 항로에서 용량 부족 문제로 임시 결항(Blank Sailing, 컨테이너 선사 또는 운송업체가 의도적으로 항해를 취소하는 것)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에서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일일 통행 허용 횟수가 32회에서 34회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상 무역 및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의 항구 파업은 공급망 붕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아시아 항구의 병목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 8월 초 중국 닝보저우산 항구에서는 정박 중이던 컨테이너선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 이 항구는 상하이 다음으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컨테이너 선적 항구로, 매일 20피트 컨테이너 10만 대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운송 지연이 예상된다. 또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홍해 상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13일

인니, EU에 자국 수산물 '청정성' 증명 못해

EU의 수출액은 전체의 1% 미만으로 확대 위해 노력

인도네시아는 유럽 국가들이 제품의 품질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7년간 EU에 대한 생선과 수산물 공급을 늘리지 못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물관리감독청(BPPMHKP)이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 102개국에 수산물을 수출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장 수가 118개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EU로의 수출 증가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트레이드맵(TradeMap)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의 총수출액은 36억 달러였지만, EU로의 수출액은 790만 달러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유럽 국가로의 수출은 실제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

로 확인되었다.

"현재 유럽 연합에 제품을 수출한 어류 가공업체는 176개이다. 그러나 7년 동안 공급 승인을 받은 업체 수를 늘리거나 제품 물량을 늘릴 수 없었다."라고 인도네시아 감독청장은 말하였다.

제한의 이유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어업이 EU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으로 공급되는 생선과 수산물에는 2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청장은 인도네시아가 계속해서 유럽 국가에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8월 13일



호주 조업선, 승무원 인증에 대한 FISH 표준 획득

호주 선박의 첫 FISH 인증

F · I · S · H



STANDARD FOR CREW

FISH Standard for Crew Inc는 Austral Fisheries社 선단 소속 선박 2척이 FISH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하였다. 인증을 받은 선박인 케이프 아르

코나와 이슬라 에텐은 남극해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및 빙어를 조업하는 호주 국적의 선박이다. 인증 기관인 MRAG Americas社は 광범위한 정책 및 절차 검토, 선박 현장 실사, 선원 대면 인터뷰 등을 거쳐 인증을 수여하였다.

“Austral Fisheries社は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이는 직원을 우선시하고 우리 선단이 선원 대우, 보상 및 선상 조건과 관련하여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회사 측은 알렸다.

FISH 표준은 궁극적으로 어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증된 선단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구매자와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검증

역할을 수행한다.

FISH 표준은 전 세계 야생 포획 어업 선박의 노동 관행에 대한 자발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인된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FISH 표준은 ILO-C188 및 관련 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Austral Fisheries社は 호주 최대의 통합 상업 어업 회사로, 호주 북부 새우 어업, 도미 어업, 남극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및 빙어 어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1997년 수산업계 최초로 해양관리 협의회(MSC)를 지지했으며, 2016년 호주 정부의 '기후 활성' 표준에 따라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인증을 획득한 수산 기업으로 호주 카일리스 피셔스 홀딩스社와 일본 마루하 니치로社가 공동 소유한다.

MRAG Americas社は 민간 컨설팅 및 감사 회사로 해양 및 담수 생태계의 보전, 책임감 있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어류 및 기타 수생 자원의 사용을 지원한다. 공인된 적합성평가 기관으로, FISH 승무원 표준 평가 및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 출처: Perishablenews.com, 2024년 8월 28일



中, 해외 감시 강화로 자국 시장 공략 추진

원양 단체-요식업 조직 간 협력

중국의 원양어업을 대표하는 무역 단체가 쓰촨성 요식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력하여 자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 사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2024년 청두 저우산(Zhoushan) 해양수산물-식품 축제 기간 동안, 저장(Zhejiang) 원양어업협회와 쓰촨 호텔-레스토랑-엔터테인먼트협회는 국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각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저우산 원양어업협회의 천젠(Chen Jian) 회장은 중국이 여전히 원양산 어획물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천 회장은 "우리의 야망의 규모는 이제 더 커졌다. 우리는 참치, 오징어, 콩치를 반입하며, 우리의 수산물과 쓰촨 요리가 큰 조화를 이루어 훌륭한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쓰촨 호텔-레스토랑-엔터테인먼트협회의 우원친(Wu Yun Qin) 사무총장은 제품의 품질과 낮은 조달 비용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저우산 원양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의 원양어업은 역사적으로 참치와 오징어의 해외 구매자에 의존하였으며, 이들의 비중은 전체

어획량의 70%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동 착취 및 불법어업 혐의로 일부 중국 원양 선사에 제재가 가해졌다.

NGO인 환경정의재단은 최근 중국 선단이 인도양에서 불법 조업과 노동 착취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자국의 일부 원양 선사가 2022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명시된 유해 어업 보조금 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들 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중국의 원양 부문은 이러한 보조금에 의존하여 이익을 창출하며, 특히 수익성이 낮은 오징어 선단이 그렇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Planet Tracker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회사 중 다수가 해외 노동자에게 중국 지수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원양산 어획물의 판매를 국내 시장으로 전환하여 점차 커지는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관측된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8월 7일



우리나라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

소비 위축 및 생산 감소 등의 이유로 수입량 감소

'24년 상반기 우리나라 명태 수입량은 총 9만 2천 톤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11.7% 감소하였다. 2분기 명태 수입량은 3만 2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8% 감소하면서 1분기의 감소폭이 확대하였다. 러시아산 명태는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국내 수요도 저조하여 수입이 감소한 반면, 미국산 냉동 명태 연육은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명태 수입량의 품목별로 냉동 명태가 71.2%, 냉동 연육은 13.9%, 냉동 필렛트는 10.0%를 차지하였고, 국가별 수입액은 러시아가 76.1% 미국이 17.2%를 차지하였다.

'24년 상반기 대구 수입량은 7,200톤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41.9% 감소하였다. 2분기 대구 수입량은 3,4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2% 감소하면서 1분기의 감소폭은 축소하였다. 수온 상승 등에 따른 서식지 이동으로 대구 어획량이 감소 추세여서 러시아산 대구 공급이 저조한 가운데, 중국산 대구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대구 수입량의 품목별로 냉동 대구가 81.6%, 신선·냉장품이 10.6%, 냉동 필렛트가 7.1%를 차지하였고, 국가별 수입액은 러시아가 66.9%, 미국이 21.6%, 중

국이 8.3%를 차지하였다.

'24년 상반기 참다랑어 수입량은 2,500톤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60.9% 감소하였다. 2분기 참다랑어 수입량은 1,7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7% 감소하면서 1분기의 감소세는 축소하였다. 전체 참다랑어의 수입 감소는 국내 소비 위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다랑어 수입량의 품목별로 냉동 필렛트가 8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는 냉동 원물 형태로 수입하였고, 국가별 수입액은 튀르키예 22.1%, 이탈리아 19.9%, 스페인이 17.1%를 차지하였다.

'24년 상반기 오징어 수입량은 6만 7천톤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19.6% 감소하였다. 2분기 수입량은 3만 6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7% 감소하면서 1분기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페루산 오징어의 수입이 감소하며 대체국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산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입량은 감소하였다.

오징어 수입량의 품목별로 냉동 오징어가 72.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조미·자숙 제품이 26.3%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수입액은 중국이 48.9%, 페루 19.3%, 아르헨티나 6.7%, 칠레 4.5%를 차지하였다.

* 출처: FTA체결국 수산물수입동향(KMI), 2024년 8월 14일



미래의 수산물 소비는 어떻게 될까?

10대의 소비자 선호도 연구

사회 디자인 센터 '플랫폼'은 10대들의 제품 소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업계 협회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론은 이동 중 간식 트렌드와 감성적 인식의 중요성을 배경으로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젊은 소비자와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과 미식 및 기타 심층 가공 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등 수산물 시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젊은 세대는) 이성적인 계산보다 감정과 순간의 효과가 우선시된다. 현재와 미래의 건강 상태는 뒷전이지만, 성인의 경우 영양 구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젊음에 대한 숭배와 행복한 삶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은 즐거움과 모순될 필요가 없다. 맛은 없지만 몸에 좋다는 원칙은 이제 인기가 없을 것이다.”라고 연구는 말한다.

분석가들은 성인 의견이 청소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젊은 세대의 영양에 대한 관심은 부모로부터의 정보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현대인의 삶의 속도는 이동 중에도 손에 잡을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요리는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에서 자유 시간에 즐거움을 위한 취미로 변화한다.

* 출처: Fishnews, 2024년 9월 2일

아프리카 탐험 결과 러 조업량 5배까지 증가 예상

식량 안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와 협력 구축에 기여

러시아 어민들은 연방수산청의 대아프리카 탐험의 결과로 아프리카 연안에서 어획량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처음으로 전 대륙 연안의 모든 해양 생물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전 러시아 수산 및 해양학 연구소(이하, VNIRO)의 소장은 말하였다.

VNIRO 소장은 “이 탐험은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전체 해안을 2년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우리는 2026년에 인도양에 접근하여 아프리카 대륙 해안의 모든 생물자원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탐험은 기간과 연구가 수행될 경제 구역의 수 측면에서 이전 연구와 유사점이 없다. 연구는 18개 국가의 경제 구역에서 수행된다. 이는 식량 안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구축에 이바지한다.

아프리카 항구 방문, 러 대사관, 무역 사절단 등이 참여하는 행사도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VNIRO 소장은 덧붙였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8월 13일



명태

신지혜

물살 깊은 방향을 뿌리째 뽑아줄게요
 해저, 골목골목 스친 긴 꼬리를 모두 잘라줄게요
 온 생을 실 새 없이 휘젓던 지느러미도 이젠 떼어줄게요
 젖은 날을 송두리째 건져 올려,
 무성한 슬픔이 뼈째로 펄럭이도록
 건조한 해풍에 널어줄게요
 청청한 하늘, 밤낮없이 들고 나도록
 투명한 두 눈알은 환히 열어둘게요
 그래 빛 좋은 수평선 위에
 오체투지하는 성자처럼 매달게요

 고스란히 보존된 삶의 몸 안으로
 짝 차오르는 밤낮,
 온몸으로 허공을 풍경처럼 땡땡 두들겨
 단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심천, 적멸에 들게





8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19% 증가, 수입량 35% 증가

□ 생산동향<8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증가>

8월 오징어 생산량은 1만 4,418톤으로 전월 대비 19.1%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36.5%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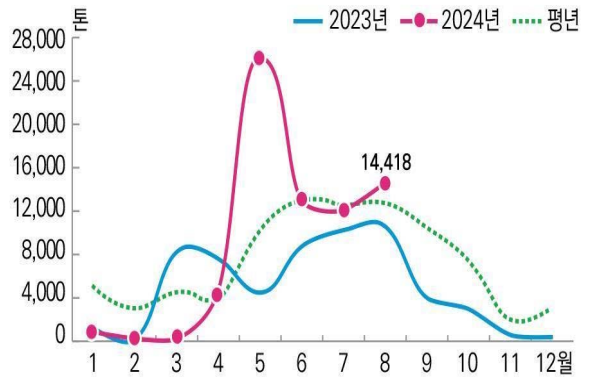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1만 3,037톤으로 전월 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전년 및 평년보다도 많았다.

8월 원양산 오징어 어획량은 166톤으로 전월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8월까지 원양산 오징어 누적 어획량은 5만 9,481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9.6%, 56.9% 많았다.

연근해산 오징어 생산량은 1,381톤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3.2%, 84.4% 적었다.

이는 여름철을 맞아 서해안 중남부 해역에서 주 어장이 형성되었으나, 낮은 자원 밀도가 지속되며 어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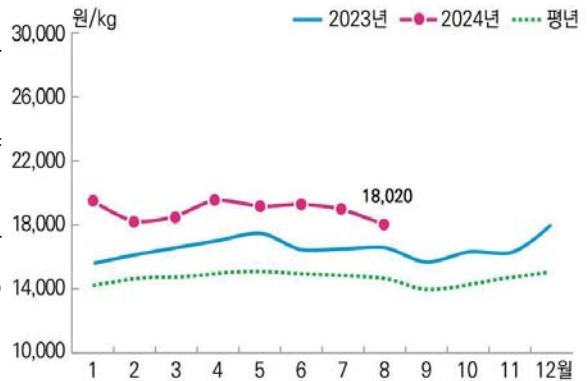
□ 가격동향<8월 냉동 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하락>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10,514원으로 전월 대비 37.8% 상승하였으며, 전년보다도 20.7% 높았다.

이는 저인망어업을 통한 어획 비중이 늘며 품질이 양호한 오징어가 위판되었기 때문이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kg당 14,775원으로 전월과 비슷하였으나,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1.2%, 42.1% 높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8,020원으로 전월 대비 4.7% 하락하였으나, 전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8.4%, 23.8% 높았다.





□ 수출입동향<8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증가>

8월 오징어 수출량은 1,005톤으로 전월 대비 41.5% 증가하였으나,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0.2%, 50.4%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527톤)과 중국(258톤)으로 수출이 많았고, 그 외 캐나다, 일본, 호주 등으로 수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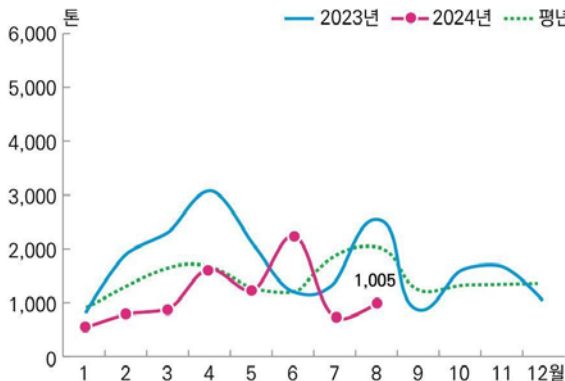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442톤),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399톤), 조미오징어(143톤) 등의 순이었다.

8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6,806톤으로 전월 대비 35.3% 증가하였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0.1%, 14.1%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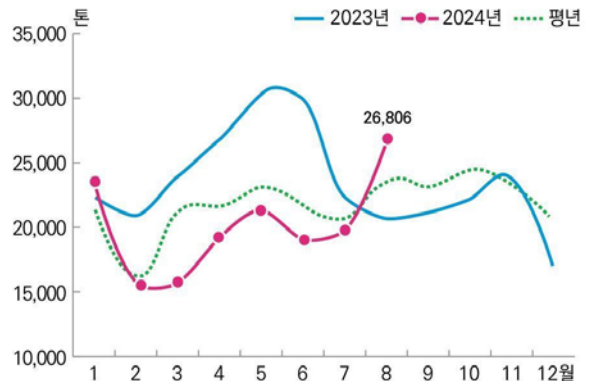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중국산(10,057톤)과 페루산(9,955톤)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았다.

제품 형태별로는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12,463톤), 냉동오징어(11,400톤), 조미오징어(2,692톤), 건조오징어(237톤) 등의 순이었다.

<오징어 수출량 추이>



<오징어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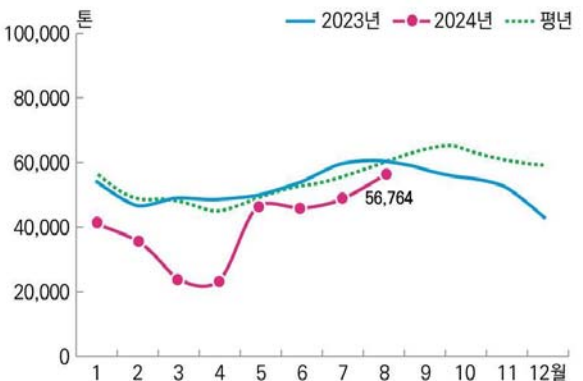
□ 재고동향<8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증가>

8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5만 6,764톤으로 반입과 수입이 늘며 전월 대비 14.8% 증가하였다.

한편, 전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각각 6.3%, 5.4% 적었다.

연근해산 재고량은 전월 대비 9.2%, 원양산도 16.3% 증가하였다.

* 출처: KMI 수산관측 9월호





8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반입량 84% 증가, 소비자가격 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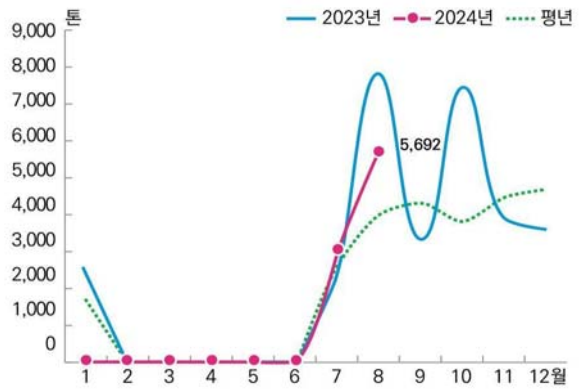
□ 생산동향<8월 원양명태 반입량, 전월보다 증가한 5,692톤>

8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5,692톤으로 전월 대비 83.9% 증가하였다.

평년에 비해서도 43.8% 많았으나, 반입량이 많았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26.7% 적었다.

8월까지 누적생산량은 평년에 비해서는 5.1% 많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30.0% 적었다.

한편, 러시아수역내 명태 쿼터를 7,000톤 추가 배정 받아 총쿼터는 2만 9,000톤이 되었으며, 8월 31일까지 어획된 원양명태는 1만 6,615톤으로 배정된 쿼터의 58.6%를 소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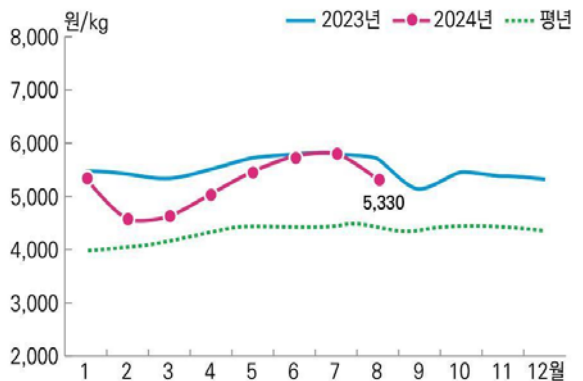


□ 가격동향<8월 명태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하락한 kg당 5,330원>

8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386원으로 전월 수준이었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평년에 비해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5.0%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330원으로 전월 대비 8.8%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6.3% 낮았다.





□ 수출입동향<8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감소한 3만 2,182톤>

8월 명태 수출량은 2,678톤으로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3.0%, 76.5% 감소하였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76.4%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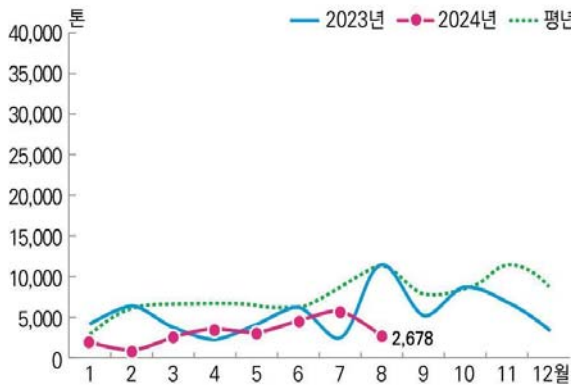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보면, 냉동연육은 멕시코로 571톤, 태국으로 557톤이 수출되었고, 냉동제품은 중국, 베트남으로 각각 526톤, 234톤이 거래되었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3.0% 감소한 3만 2,182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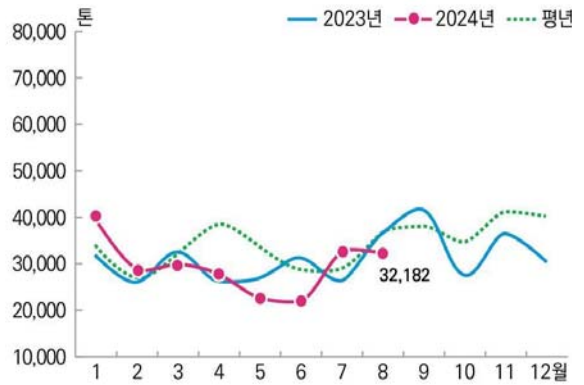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13.1%, 14.2% 적은 양이었다.

러시아산 냉동제품이 1만 1,656톤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산 냉동필렛 9,663톤, 미국산 냉동연육 3,114톤, 러시아산 건조제품 2,272톤 등이 수입되었다.

<명태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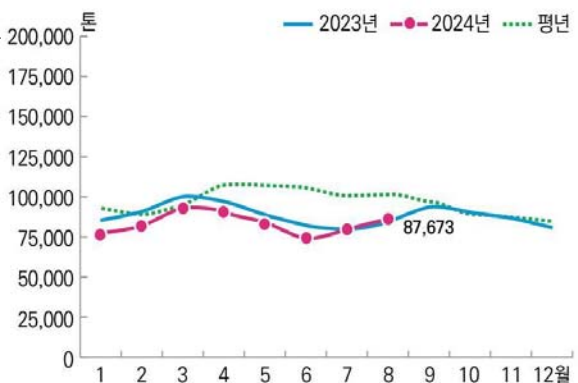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 추이>



□ 재고동향<8월 재고량, 전월 대비 증가>

8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전월 대비 9.2% 증가한 8만 7,673톤이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2.6% 많았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15.6% 적었다.



* 출처: KMI 수산물측 9월호

[특한 국 원 양 산 업 협 회 연 락 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협회장	김영규 회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상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이사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서	조한솔 대리	589-1601/1621	비서, 출납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	총괄(겸직)
		김효상 과장	기획
		조성주 과장	홍보
		김민재 주임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총괄
		김영수 과장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은혁 주임	노사, 선원
	총무부	공길용 과장	총무, 회계
		조성환 과장	서무관리, 차량운영
		이인수 사원	원양어업관리자금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무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참치선망
		김지원 사원	참치연승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	총괄
		최상진 주임	오징어, 기타트롤
경영지원본부	부산지부	이형균 이사	총괄
		김현애 과장	수출, 반입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차량계량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센터장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이석우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예산, 인사, 명예수산물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신신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해외수산물협력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th>044-868-7364 <th>국제(수산)기구</th> </th>	044-868-7364 <th>국제(수산)기구</th>	국제(수산)기구
국제협상팀	김수민 전문관	044-868-7863	국제(수산)기구	
	이승은 전문관	044-868-7831	국제(수산)기구	
	-	044-868-7833	국제(수산)기구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명예해양수산물관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물관	62-21-2287-4165 scpark@top-bridge.com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물관	230-217-1700 kmarinelee@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원양산업 제1173호

발행 2024년 9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 영 규
 편집인 김 영 규